

2024 통일의식조사

부상하는 분단 지지, 흔들리는 통일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급변하는 통일의식

일시: 2024년 10월 2일(수) 14: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종합교육연구동(220동) 204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4 통일의식조사

부상하는 분단 지지, 흔들리는 통일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급변하는 통일의식

프로그램

제1부 기초분석		사회 천해성(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4:00~15:30	개회사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발표1 통일의식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발표2 북한인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3 대북정책인식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4 북한이탈주민인식	최은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5 주변국인식	황수환 (통일연구원)
	토론 안경모 (국방대학교) 송영훈 (강원대학교)	
15:30~15:45	휴식	
제2부 심화분석		사회 윤지현(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5:45~16:50	발표1 통일북한(정책)인식과 정치적 선택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2 Z세대의 통일 회의론 분석: 자발적 회의론, 비자발적 회의론, 그리고 통일 무관심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토론 이상신 (통일연구원)	
제3부 종합토론		사회 김범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16:50~17:50	부상하는 분단 지지, 흔들리는 통일론	
	토론 안정식 (SBS)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재한 (한림대학교)	
17:50~18:00	폐회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kjkl3@snu.ac.kr 로 연락 바랍니다.



사전참가 신청

목차

세션1 | 기초분석

- 발표1 김범수 | 통일의식
- 발표2 김병로 | 북한인식
- 발표3 장용석 | 대북정책인식
- 발표4 최은영 | 북한이탈주민인식
- 발표5 황수환 | 주변국인식
- 토론 안경모, 송영훈

세션2 | 심화분석

- 발표1 이성우 | 통일북한(정책)인식과 정치적 선택
- 발표2 김택빈 | Z세대의 통일 회의론 분석:
자발적 회의론, 비자발적 회의론, 그리고 통일 무관심
- 토론 이상신



통일의식

김범수

통일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자유전공학부 교수)

1.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36.9%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5.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특히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4%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7.4%에 달함
- 30대의 경우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23.9%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5.0%에 달함

2. 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가?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33.9%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으며, 27.9%가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를 꼽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통일 이후 사회문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 특히 올해 조사에서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매우'와 '다소'를 합해 43.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하락한 반면 남한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별로'와 '전혀'를 합해 57.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로 상승
- 마찬가지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3.2%인 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76.8%에 달함
- 또한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통일이 이념갈등, 범죄문제, 지역갈등,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0%를 넘어서고 있음

3. 남북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5.6%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남북이 사실상 2개 국가로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은 31.2%로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
-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 또한 2019년 5.8%에서 2024년 11.3%로 상승하여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4. 통일은 '불가능하다'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2024년 조사에서 통일이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0.7%, '10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3%로 두 항목 모두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최저 수준으로 하락
- 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9.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각각 45.1%와 43.1%로 40대(35.8%), 50대(34.7%), 60대(3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현재의 분단 체제를 선호하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5.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현체제 유지'라고 응답한 비중은 52.2%로 2009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
-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해소, 북한의 인권 개선 등의 순서로 인식
- 그러나 동시에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시급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2022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6. 결론: 2030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이익,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

- 2024년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갈등과 긴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 이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통일의 가능성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이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남한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가장 높은 수준(57.0%)으로 상승
- 또한 남북이 분단된 '현재대რო가 좋다'라는 응답 비중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 비중이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이와 더불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 비중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2024 통일의식조사]

통일에 대한 인식

김범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주요 특징

2024년 조사의 주요 특징

- 남북한 간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히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36.9%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은 35.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특히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22.4%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47.4%에 달함
 - 30대의 경우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23.9%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은 45.0%에 달함
-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분단체제인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과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증가 추세에 있음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 비중은 45.6%로 하락한 반면 남북한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 비중은 31.2%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과 '불가능하다'는 응답 비중은 각각 31.4%와 39.0%로 두 수치 모두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통일의식조사〉

● 2024년 조사의 주요 특징

- 남북한 간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히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36.9%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은 35.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특히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22.4%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47.4%에 달함
 - 30대의 경우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23.9%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은 45.0%에 달함
-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분단체제인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과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증가 추세에 있음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 비중은 45.6%로 하락한 반면 남북한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 비중은 31.2%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과 '불가능하다'는 응답 비중은 각각 31.4%와 39.0%로 두 수치 모두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통일의식조사

● 통일의 이미지

-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통일의 이미지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남북 간 경제협력의 심화되는 것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기타
2018	58.1	14.8	19.3	7.5	0.2
2019	60.6	15.0	20.0	4.1	0.3
2020	62.6	13.4	17.7	5.9	0.3
2021	63.6	11.8	18.5	6.1	0.0
2022	58.1	13.2	20.0	8.8	0.0
2023	59.8	12.3	22.5	5.4	0.0
2024	62.3	11.6	19.8	6.2	0.1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의 필요성 세대별 응답 비율(19~29세: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7.4%로 역대 최고)

연령대	매우 +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19	'20	'21	'22	'23	'24	'18	'19	'20	'21	'22	'23	'24	'18	'19	'20	'21	'22	'23	'24
19~29세	54.2	41.1	33.9	28.0	27.8	27.8	22.4	28.3	33.7	29.3	29.2	32.5	29.1	30.2	17.6	25.3	36.7	42.8	39.7	43.1	47.4
30대	52.9	38.3	43.0	41.2	33.9	34.0	23.9	27.4	36.9	25.6	25.5	33.8	30.9	31.1	19.7	24.9	31.4	33.3	32.3	35.1	45.0
40대	58.7	54.1	57.3	45.5	50.3	43.1	36.9	26.4	27.0	22.5	30.3	24.3	25.5	27.6	14.9	18.9	20.2	24.2	25.5	31.3	35.5
50대	69.4	62.0	62.5	46.5	50.4	52.5	43.6	16.0	21.0	18.6	26.7	30.3	22.3	29.8	14.5	17.0	19.0	26.8	19.2	25.3	26.6
60대 이상	62.1	66.8	61.4	57.0	61.2	54.8	49.0	23.4	15.6	18.5	21.6	18.4	24.9	23.8	14.5	17.6	20.1	21.4	20.4	20.3	27.2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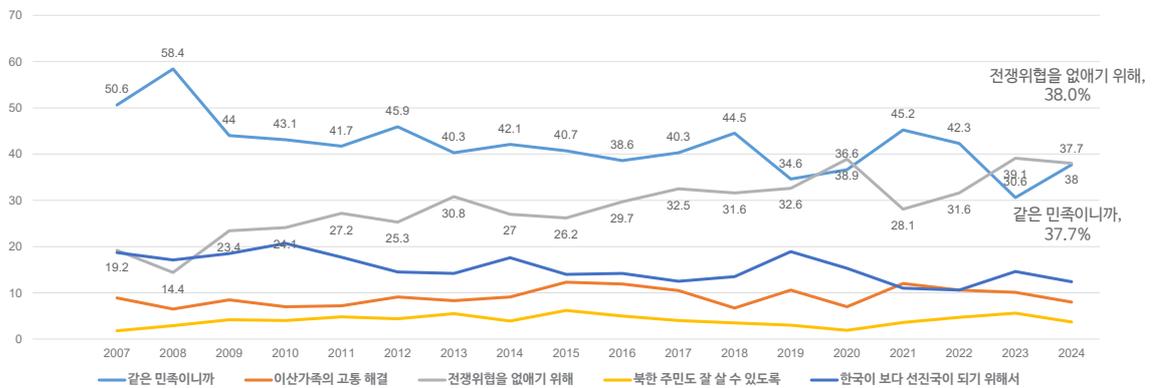
- 통일의 필요성 정치성향별 응답 비율(필요하지 않다: 진보) 보수

정치적 성향	매우+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19	'20	'21	'22	'23	'24	'18	'19	'20	'21	'22	'23	'24	'18	'19	'20	'21	'22	'23	'24
진보적	66.6	67.5	65.6	51.8	47.9	42.8	39.2	21.8	21.0	16.7	24.5	26.5	25.8	23.5	11.6	11.6	17.7	23.7	25.6	31.4	37.3
중도	57.3	42.1	47.0	42.2	43.7	44.1	33.6	26.4	32.6	27.5	28.4	29.8	25.7	29.7	16.2	25.3	25.5	29.5	26.5	30.2	36.8
보수적	53.0	57.3	43.4	40.6	48.3	44.0	42.6	22.4	19.3	21.5	25.2	23.5	27.8	29.4	24.7	23.4	35.0	34.3	28.2	28.2	28.0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유

-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쟁위협



통일의식조사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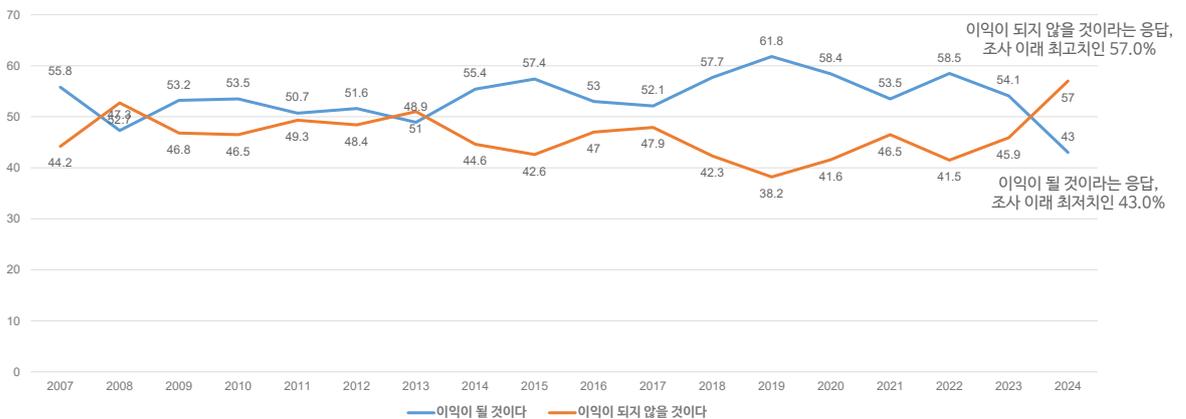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경제적 부담

연도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통일로 인한 주변국 경제 불안정	기타 / 무응답
2018	19.2	13.7	35.2	26.8	4.5	0.6
2019	17.9	12.7	38.8	25.4	4.6	0.5
2020	21.3	13.5	35.0	27.0	2.7	0.5
2021	21.1	16.6	33.2	25.9	2.9	0.3
2022	21.5	20.1	34.1	20.3	4.0	0.1
2023	19.9	13.0	35.4	27.9	3.7	0.0
2024	19.2	14.6	33.9	27.9	4.3	0.1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익: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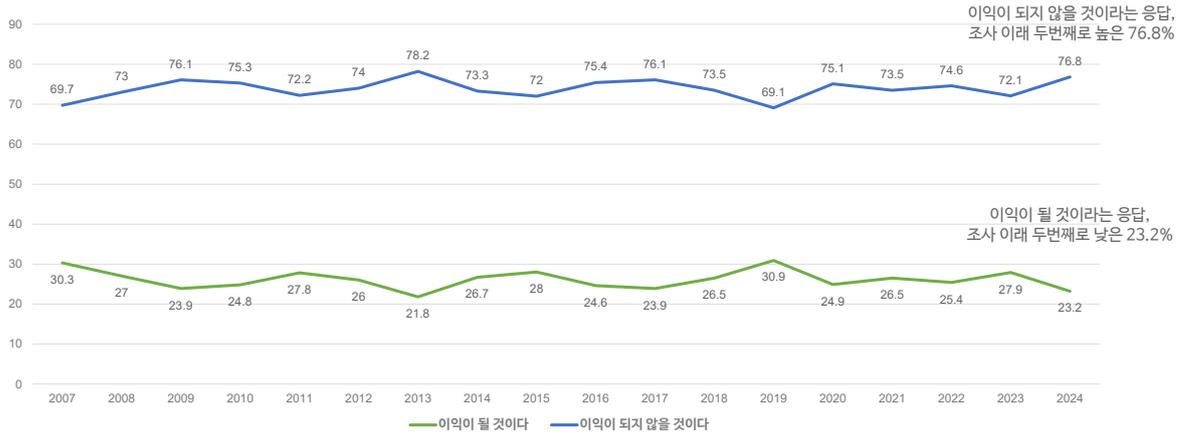
-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익이 되지 않는다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익: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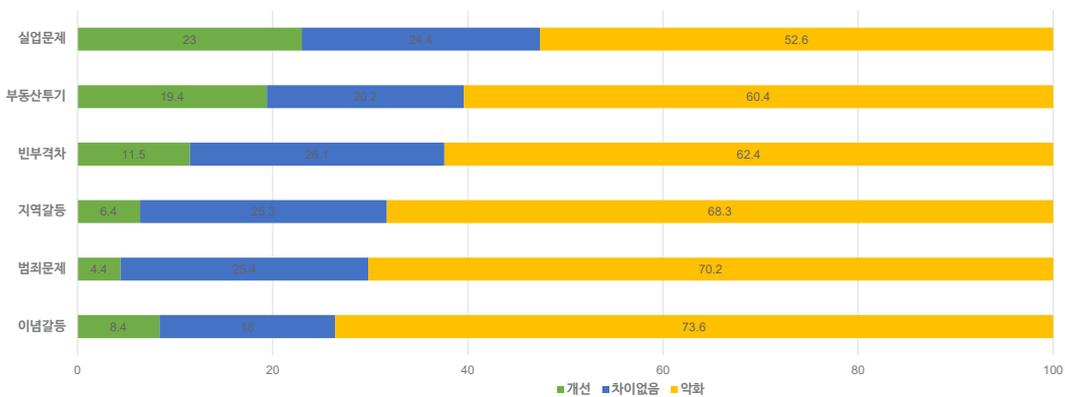
-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익이 되지 않는다



통일의식조사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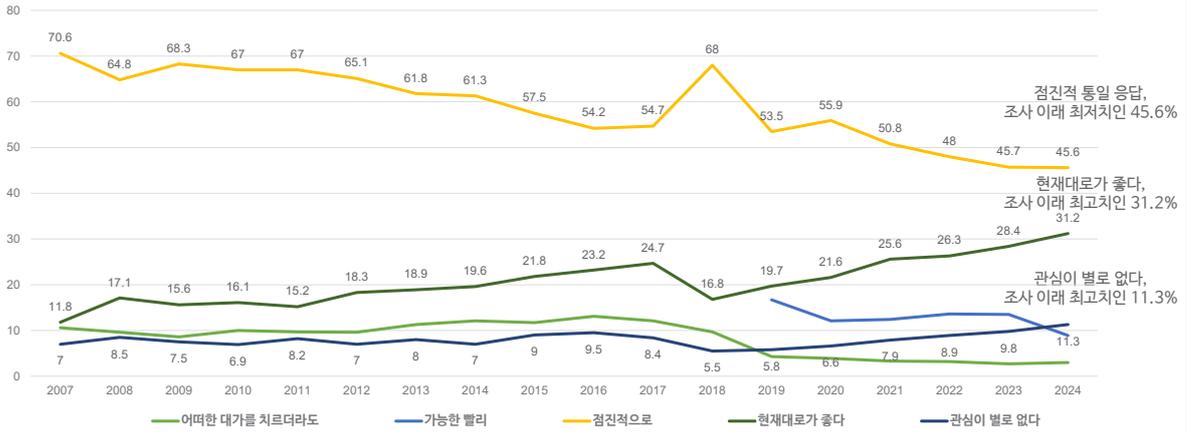
- 통일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 악화시킨다



통일의식조사

통일에 대한 견해

•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점진적 통일 but ...



통일의식조사

통일에 대한 견해 세대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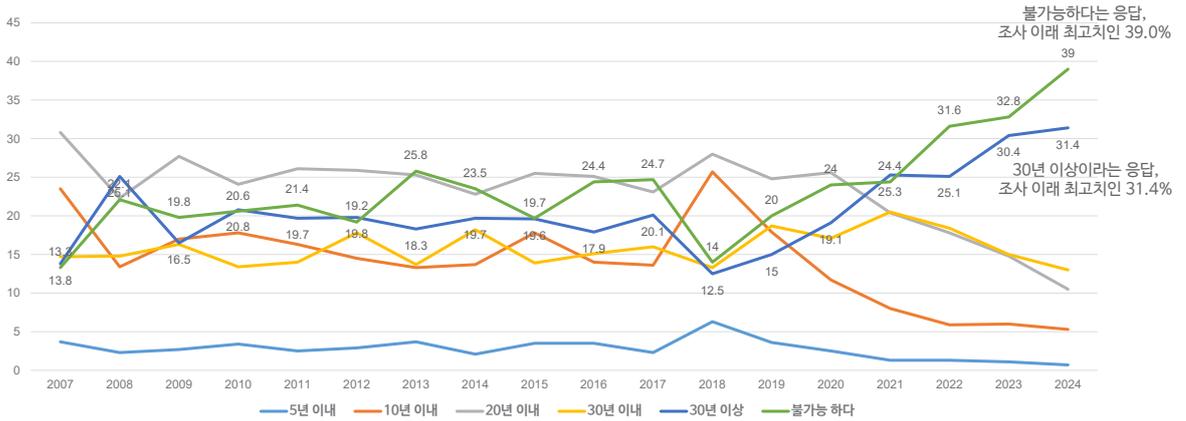
•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현재대로+무관심

연령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여권이 성숙 되기를 기다려야						현재대로가 좋다						관심이 별로 없다					
	'19	'20	'21	'22	'23	'24	'19	'20	'21	'22	'23	'24	'19	'20	'21	'22	'23	'24	'19	'20	'21	'22	'23	'24	'19	'20	'21	'22	'23	'24
19~29세	1.9	1.7	2.6	2.9	2.1	2.5	14.6	6.3	7.8	8.7	5.6	4.7	48.2	49.7	38.6	39.3	34.5	39.5	27.4	30.6	32.9	32.4	41.8	36.8	7.9	11.7	17.8	16.7	16.0	16.5
30대	2.7	1.7	2.0	1.0	2.7	1.7	12.8	9.0	10.7	8.0	6.2	3.2	54.2	57.8	48.9	49.7	46.7	42.2	26.7	25.5	30.7	34.2	29.9	37.3	3.6	6.0	7.7	7.1	14.5	15.7
40대	2.6	6.1	2.0	1.7	2.2	1.8	20.3	12.0	12.3	12.7	11.4	8.4	56.2	60.5	57.6	48.9	50.8	47.6	16.7	17.1	22.2	28.8	26.6	32.1	4.2	4.3	5.8	7.9	9.0	10.0
50대	5.8	4.7	3.1	5.3	3.2	2.1	18.1	16.5	15.9	15.0	16.4	11.4	56.2	56.2	51.1	52.4	49.5	51.9	14.6	18.4	23.1	19.9	24.9	26.7	5.4	4.1	6.7	7.5	5.9	7.9
60대 이상	8.2	4.6	6.0	4.5	3.0	5.9	17.1	15.3	14.2	20.9	23.2	13.6	51.7	54.8	55.9	48.6	45.3	44.6	14.7	18.2	21.0	19.7	22.3	26.8	8.3	7.3	2.8	6.3	6.2	9.0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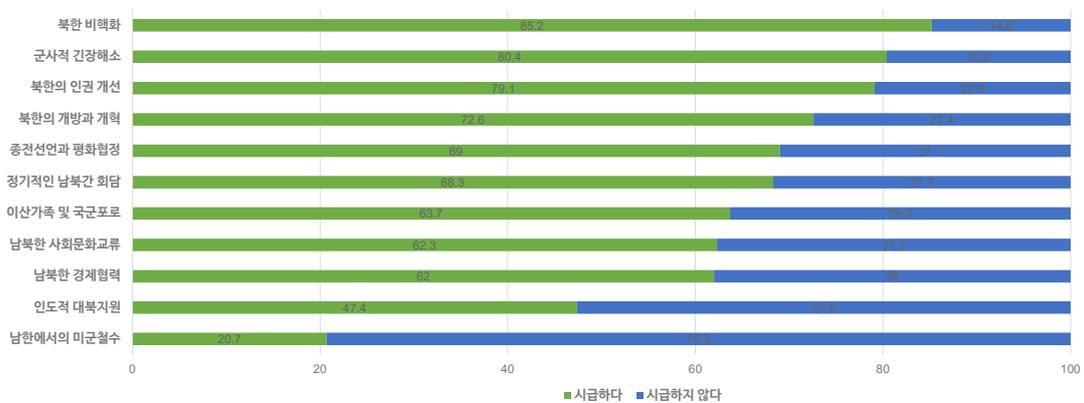
- 통일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불가능하다



통일의식조사

시급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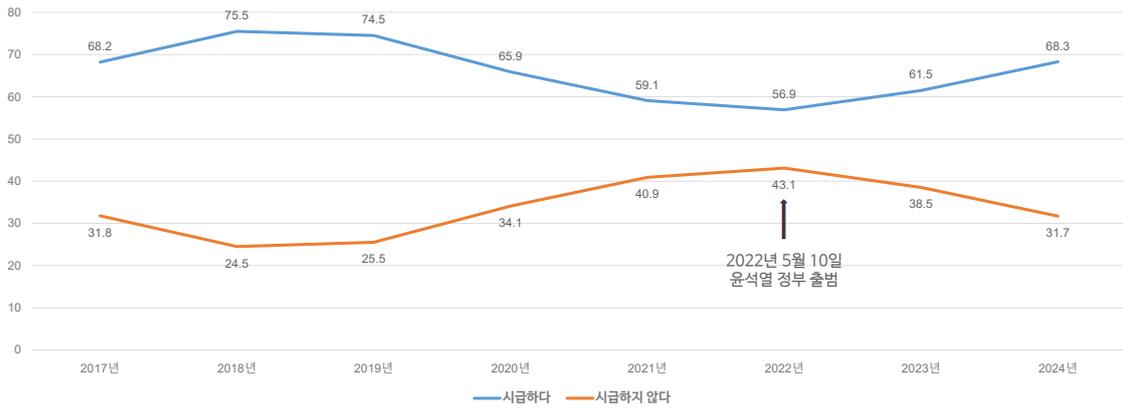
-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 비핵화



통일의식조사

시급성에 대한 인식: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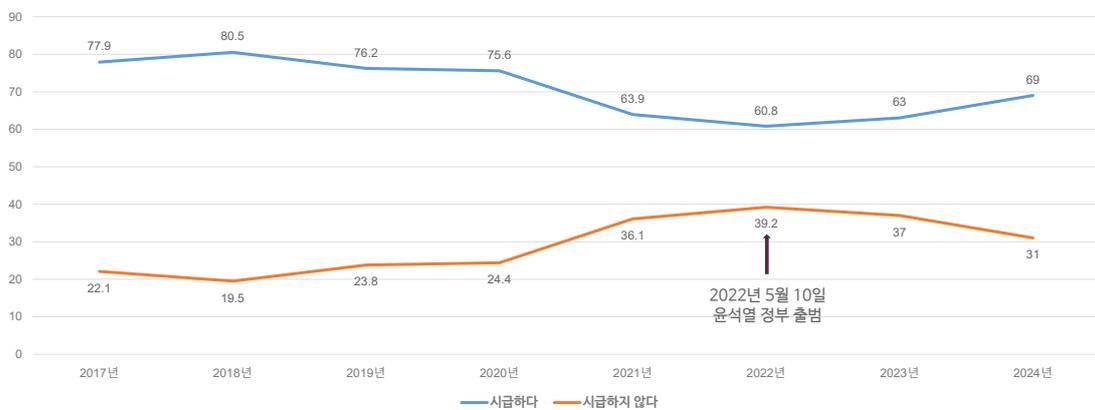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시급성에 대한 인식: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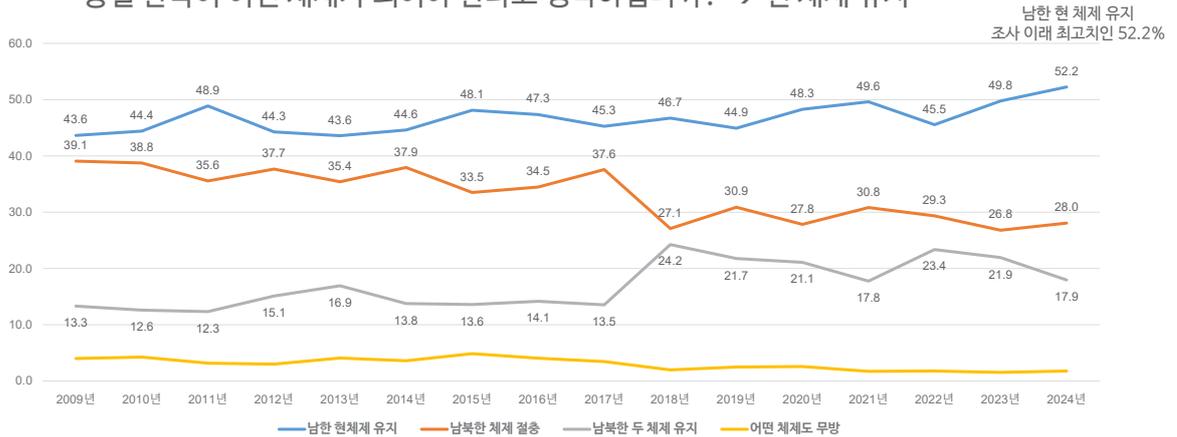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 체제 유지



주요 특징 및 경향

📍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줄어들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가 특히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지속
-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36.9%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5.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
- 특히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22.4%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47.4%에 달함
- 30대의 경우도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23.9%에 불과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45.0%에 달함

주요 특징 및 경향

● 왜? 경제적 부담 + 기대이익 하락 + 사회문제 악화 우려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33.9%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으며, 27.9%가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를 꼽고 있음
- 특히 올해 조사에서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매우’와 ‘다소’를 합해 43.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하락한 반면 남한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별로’와 ‘전혀’를 합해 57.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로 상승
- 마찬가지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3.2%인 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76.8%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통일이 이념갈등, 범죄문제, 지역갈등,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0%를 넘어서고 있음

주요 특징 및 경향

● 남북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의 비중은 45.6%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남북이 사실상 2국가로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 비중은 31.2%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
- ‘현재대로가 좋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9년 19.7%, 2020년 21.6%, 2021년 25.6%, 2022년 26.3%, 2023년 28.4%, 2024년 31.2%로 계속 상승하여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 또한 2019년 5.8%에서 2020년 6.6%, 2021년 7.9%, 2022년 8.9%, 2023년 9.8%, 2024년 11.3%로 계속 상승하여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주요 특징 및 경향

통일은 '불가능하다'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2024년 조사에서 통일이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0.7%, '10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3%로 두 항목 모두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9.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각각 45.1%와 43.1%로 40대(35.8%), 50대(34.7%), 60대(3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러한 결과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현재의 분단 체제를 선호하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주요 특징 및 경향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 동시에 긴장 해소와 남북회담, 평화협정 등도 시급

-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해소, 북한의 인권 개선 등의 순서로 인식
- 이러한 결과는 북한 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북한 핵 문제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24년 조사 결과는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2022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결론

- 2030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이익,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
 - 2024년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갈등과 긴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 이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통일의 가능성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이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남한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가장 높은 수준(57.0%)으로 상승
 - 또한 남북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응답 비중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 비중이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이와 더불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 비중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북한인식

김병로

북한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대북인식 조사 결과

- 2024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적대의식이 13.6%(22)→18.6%(23)→22.3%(24)로 작년(5%p)에 이어 올해도 3.7%p 증가,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조 상승
 - 협력의식 47.9%→37.7%→39.9%
 - 경계의식 17.7%→24.0%→18.6%
- 북핵위험과 안보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정권 신뢰도는 최저 수준 하락
 - 북핵위험 85.9%로 2014년 89.3% 다음으로 높은 수준
 -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60.9%(22)→64.8%(23)→65.6%(24)
 - 북한정권 신뢰도 26.5%로 2007년 조사 이래 최저 하락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85.9%)과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비판적 시각(83.1%)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81.9%로 조사 이래 최고조
 - 북한 핵포기 가능성 85.9% (2022년 92.5%)
 - 북한인권 심각 83.1%(매우 심각 38.2%), 북한 국가성 동의 52.1%

2. 변수별 분석

- 북핵위험과 대북 적대의식이 고조된 상황에서 세대·계층·이념 등 변수별 인식의 편차는 좁혀졌고 의식수렴 현상 진행
 - 지역변수가 유일하게 작동, 그 외 세대나 교육,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차 없어짐
- 남북한관계(북한대상인식)에서만 지역 외 연령, 사회계층, 종교 변수 작동
 - 세대: 부정인식(경계+적), 20대(51.3%), 30대(48.6%) 높고, 40대(37.2%), 50대(35.4%), 60대이상(36.5%)로 낮으며, '586'민주화세대 대북 긍정인식 지속
 - 지역: 영남/충청권 협력의식 상승으로 호남(48.8%), 충청(39.7%), 수도(38.7%), 영남(38.4%)
- 가장 현저한 변화는 정치성향이 대북인식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던 기존 패턴과 달리, 올해는 진보-보수 간 인식의 격차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 협력대상, 진보 39.0%, 중도 41.2%, 보수 37.9%
 - 정권대화가능, 진보 27.4%, 중도 25.9%, 보수 26.7%
 -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진보 62.3%, 중도 66.0%, 보수 67.4%

3. 결론

- 2024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대북 적대의식과 북한정권 불신, 북한정권 통일회의론 등 부정적·비판적 의식 강화
 - 이는 북한이 지난 70년 이상 유지했던 민족·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적대적 대남전략으로 전환한 데 따른 불안과 대북 불신이 높아진 결과
 - 북한의 대남 전략 대전환 선언 이후 민족·통일 담론 폐기, 통일관련 기구·시설 철폐, 남북철도·도로 차단 및 지뢰매설 등 실질적인 대남 적대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인의 대북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북핵위험과 안보불안, 대북적대 및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북의식 수렴 현상 진행, 특히 정치성향에 따른 의식 차이 잠식

-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북한정권 신뢰도에서 처음으로 진보-보수 간 의식수렴 진행, 북한의 대남전략 전환으로 한국인의 대북인식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존에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상 등 몇 항목에서 정치성향별 차이가 잠식된 적은 있으나, 북한정권 신뢰도는 유일하게 보수·진보를 가르는 유력한 기준이었음

-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법제화하는 등 단기간 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없고, 국제적 냉랭전 질서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 이어서 향후 1년 내 대북인식이 호전될 가능성은 없으며, 세대·지역·이념 간 의식수렴 현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책과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에 대한 긍정 인식과 신뢰가 상승할 가능성 및 변수별 의식 분화 가능성 기대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북한에 대한 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 병 로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목차

- 1 조사 결과
- 2 변수별 분석
- 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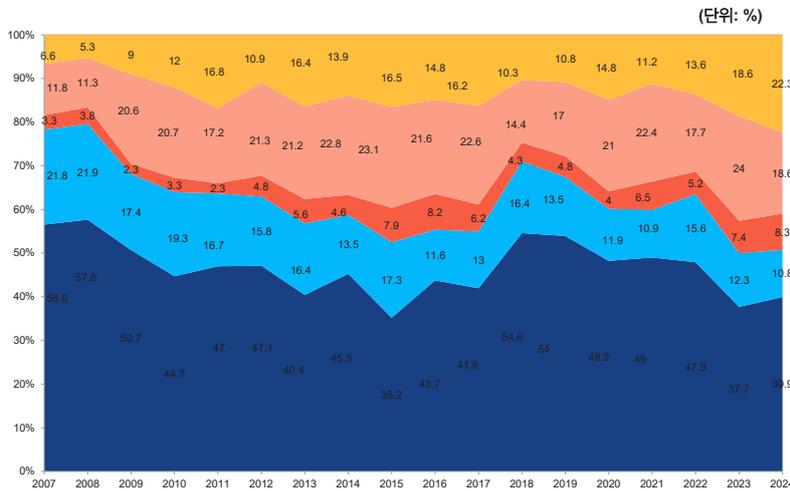


1

1. 조사결과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1) 남북한관계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 적대인식 22.3%, 조사 이래 가장 높음
- 협력인식 소폭 증가
- 세대별, 부정(경계+적)인식, 20대(51.3%), 30대(48.6%) 높음
- 40대 37.2%, 50대 35.4%, 60대이상 36.6%
- '586'민주화 세대-대북 긍정인식
- 20.60대 협력인식 상승
- 지역별, 협력인식, 호남(48.8%), 충청(39.7%), 수도(38.7%), 영남(38.4%)
- 영남,충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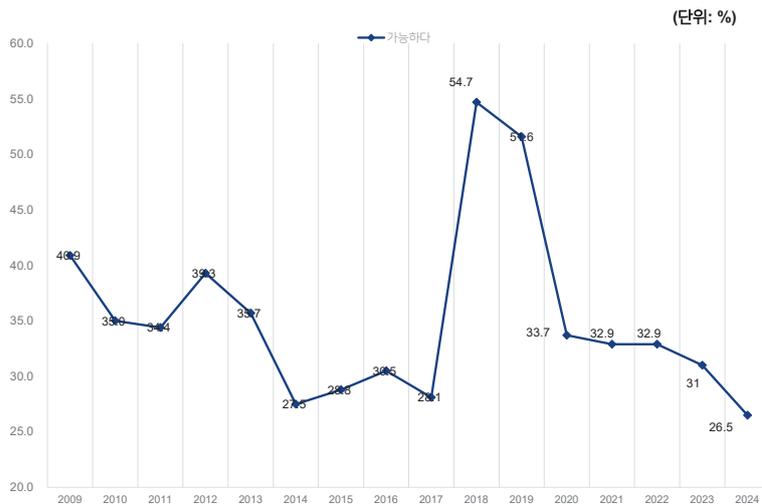
2

1. 조사결과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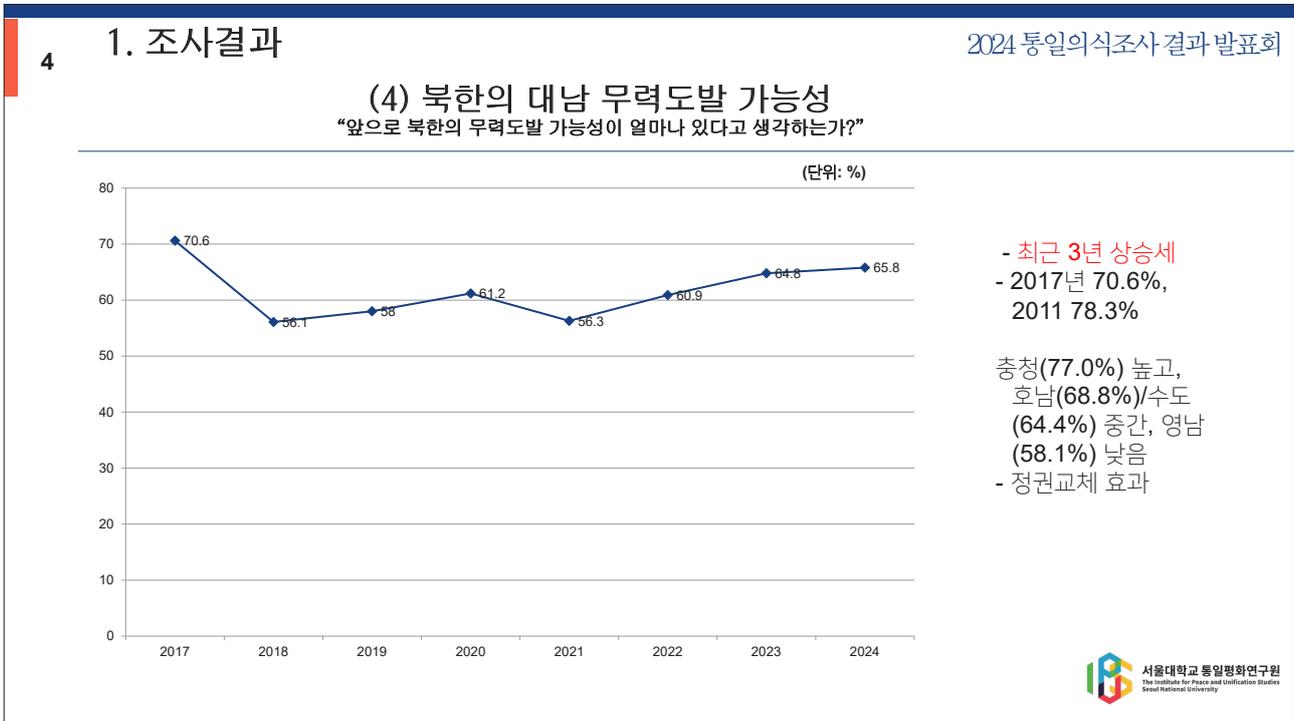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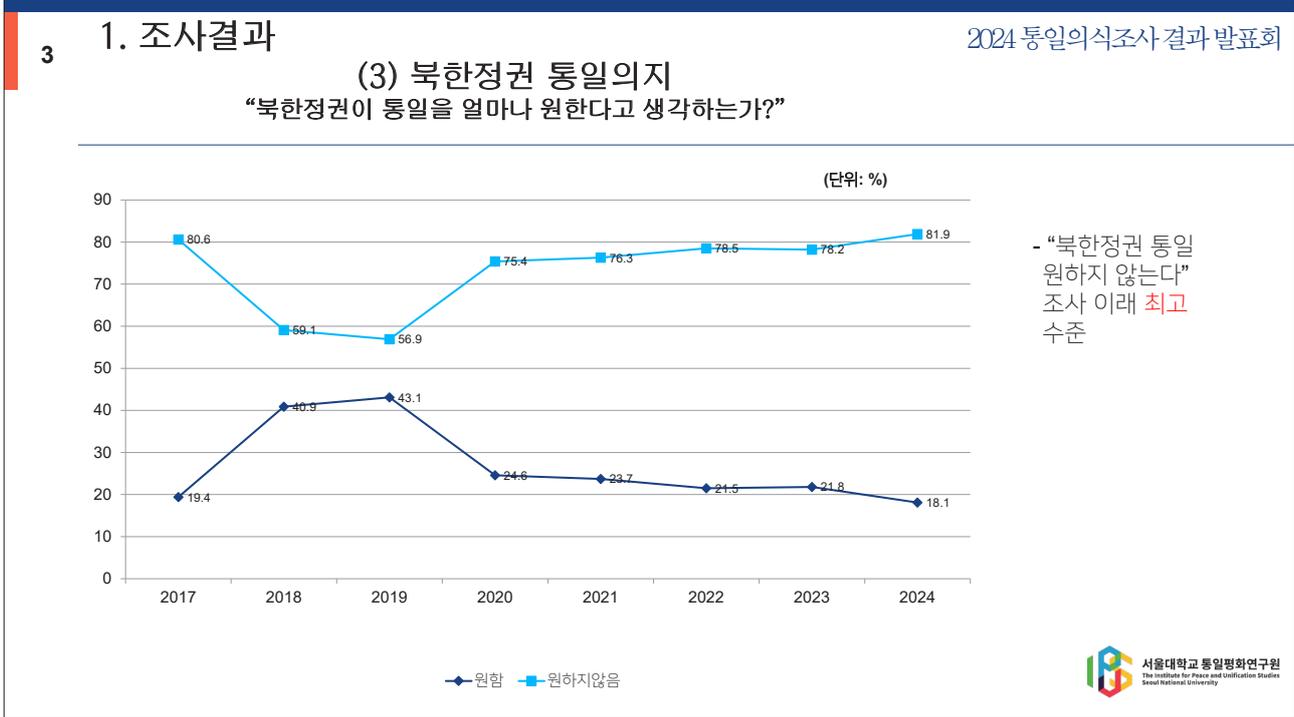
(2) 대화와 타협의 상대(정권신뢰도)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



- 26.5% 남한주민,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
- 조사이래 최저
- 2018년 기록적인 신뢰상승 및 급락 지속,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 상실
- 충청,호남 높고, 영남,수도 낮음 (수도권 하락, 충청권 상승)
- 이념별 차이 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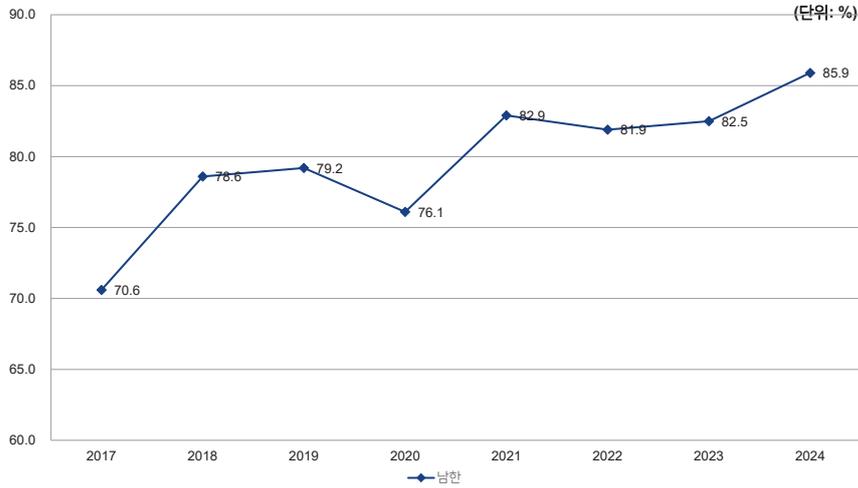


5

1. 조사결과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5) 북한 핵보유 위협 인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가?”



- 2014년 (89.3%) 다음으로 높은 수준

- 북핵에 대한 매우 높은 위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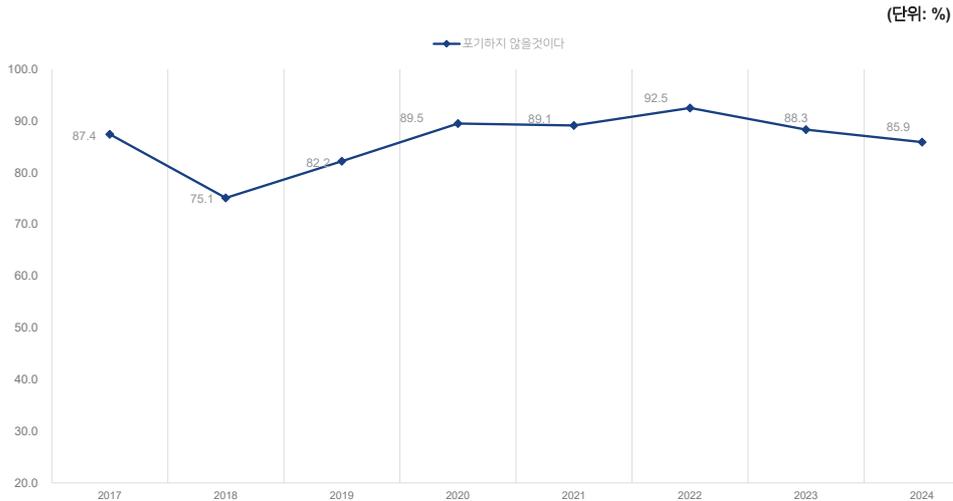


6

1. 조사결과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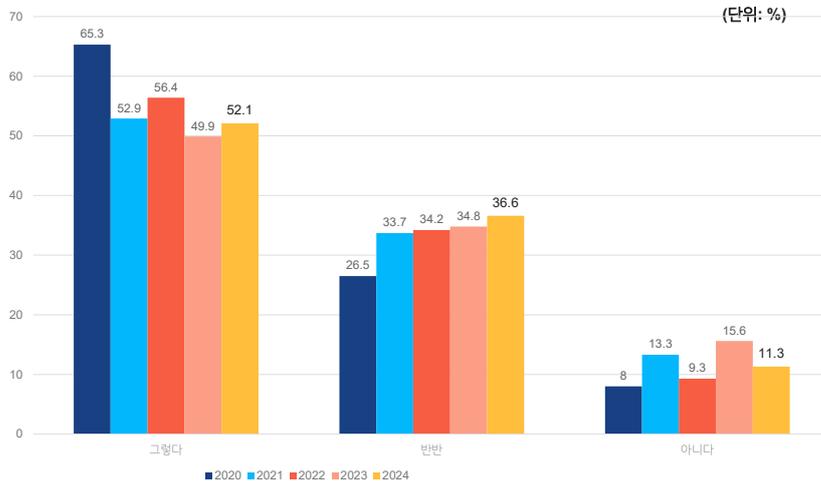
(6) 북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



7 1. 조사결과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7) 북한의 국가성 인식 -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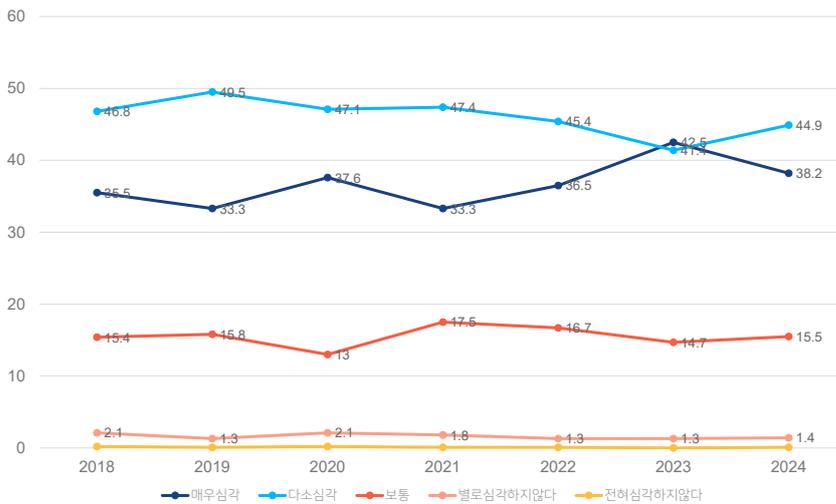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첫 조사
- 향후 북한의 국가성 인식 높아질 가능성



8 1. 조사결과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8) 북한 인권상황



- “북한인권상황 심각하다” 83.1%
- 현정부 북한인권 올인정책에도 인식 변화 없음
-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변수별 상관관계

변수	남북한관계	북한정권 신뢰도	무력도발	핵무기위협	국가성	인권상황
성별	0.186	0.080	0.982	0.028	0.270	0.607
연령	0.000	0.430	0.305	0.166	0.969	0.411
교육	0.015	0.475	0.828	0.685	0.206	0.316
지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지역크기	0.000	0.142	0.000	0.357	0.021	0.063
사회계층	0.000	0.000	0.017	0.295	0.010	0.052
정치성향	0.254	0.406	0.618	0.770	0.000	0.087
종교	0.000	0.435	0.042	0.031	0.003	0.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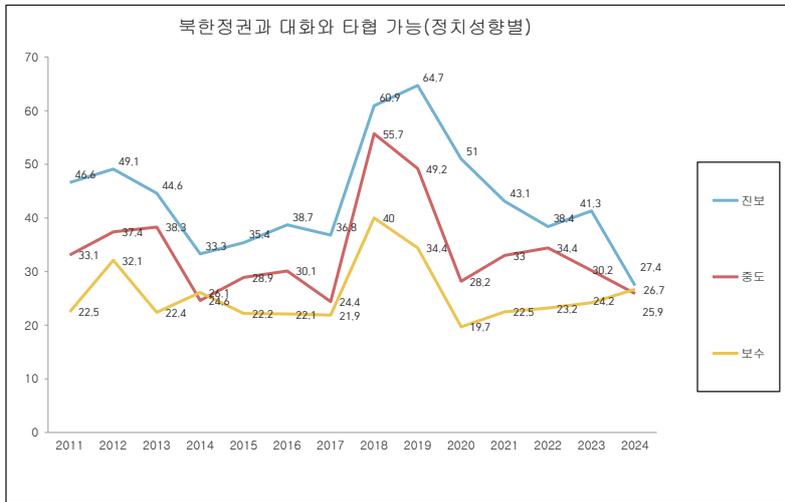


- 북핵위험과 적대인식이 고조된 상황에서 세대, 계층, 이념 등 변수별 인식의 편차 없고, **의식수렴** 현상 진행
 - 지역변수가 유일하게 작동, 그 외 연령, 교육, 이념 등에 따른 편차 없어짐
- 남북한관계(북한대상인식)에서만 지역 외 연령, 사회계층, 종교 변수 작동
- 세대
 - 부정(경계+적)인식, **20대(51.3%), 30대(48.6%)** 높음
 - 40대 **37.2%**, 50대 **35.4%**, 60대이상 **36.6%**로 낮음
 - **'586'**민주화 세대-대북 긍정인식 지속
- 지역
 - 협력인식, 호남(**48.8%**), 충청(**39.7%**), 수도(**38.7%**), 영남(**38.4%**)
 - 지난 1년간 **영남/충청** 상승



11 2. 변수별 분석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 가장 큰 변화는 정치 성향에 따른 대북인식 수렴
 - 협력대상: 진보 39.0%, 중도 41.2%, 보수 37.9%
 - 정권대화가능, 진보 27.4%, 중도 25.9%, 보수 26.7% - 처음으로 수렴현상
 -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진보 62.3%, 중도 66.0%, 보수 67.4%



12 3. 결론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 2024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대북 적대의식과 북한정권 불신, 북한정권 통일회의론 등 부정적, 비판적 의식 강화
 - 북핵무기 위협 2014년(89.3%) 다음으로 높은 85.9%
 -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비판적 의식(83.1%)
 - 적대의식 13.6% → 18.6% → 22.3%로 2년 연속 상승
 - 북한정권 신뢰도 31.6% → 26.5%로 최저 하락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85.9%)
 - 북한정권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 81.9%로 최고조
- 북한 관련 인지도 하락, 북한 관련 미디어 접촉(16.3% → 24.7%)은 증가
- 북한이 지난 70년 이상 유지했던 민족,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적대적 대남전략으로 전환한데 따른 불안과 대북불신이 높아진 결과



- 북핵위험과 안보불안, 대북적대 및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북의식 수렴 현상 진행, 특히 정치성향에 따른 의식의 차이 잠식
-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법제화하는 등 단기간 내 남북관계 개선 난망, 미중전략경쟁 완화와 신냉전 질서 변화 난망으로 대북인식이 호전될 가능성 낮고, 세대, 지역, 이념 간 의식수렴 현상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Thank you



대북정책인식

장용석

정부 대북정책 인식 (요약문)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 남북간 평화공존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2024년 조사에서 63.9%를 차지하여 2021년 조사 시작 이후 다수의 공감대를 지속 유지
-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별 응답자 성향을 보면 상대적으로 사회(집단)를 중요시하는 층에서 남북통일 중시 비중이 높고(+8.5%)
- 남북 평화공존과 한반도 평화정착 지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을 더 중시(+7.3)
-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층에서 남북 평화공존과 한반도 평화정착 지지 비중이 크고(+10.6%) 그렇지 않은 경우 남북통일과 북한 개혁개방-남북 경제공동체 통합 지지 비중이 큼(각각 +5.5%와 +4.8%)
- 세대나 정치성향 측면에서는 분화보다 수렴 양상

2.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 2022~2023년 상승이 멈추고 2024년 조사에서 13% 하락(직무 긍정평가 -14.5%)
- 만족하는 층과 불만족 층의 정치성향을 살펴보면 양자 모두 2023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권의 성격에 따른 변동 양상을 지속
- 연령대별로는 상당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바, 2024년 조사에서 연령대별 만족도 차이는 10.8%로, 20대가 48.7%로 가장 높고 40대가 37.9로 가장 낮음
- 대북정책 목표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북 통일과 평화공존, 한반도 평화정착 지지 비율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공동체 통합 지지 비율보다 높은 수준 지속

3.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 먼저 남북 합의사항 계승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현 정부 출범 이후 60% 중반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대북빠라살포 금지와 북한인권문제 지속 제기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호 수렴되는 가운데 특히 북한인권문제 지속 제기에 대한 다수의 공감대가 2018년 이후 대체로 60% 전후 수준에서 지속 유지
- 2024년 조사에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이 절반 이하로 하락한 가운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이 2018년 이후 지속 하락 중
- 북핵 문제 해결 전 남북교류협력 금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 비율 모두 각각 30%대 중후반과 20% 후반에서 2023년과 비슷한 가운데, 정세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판단 유보층(반반/보통) 비율도 30% 중반 지속 유지
-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분야별 기여 인식을 보면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 긍정 평가 비율이 60%대로 수렴되고 있는 반면 대북제재 긍정 평가 비율은 2020년 이후 절반 이하 지속

4.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비핵화 기여 인식

-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야별 기여 인식을 보면 2024년 처음으로 조사한 남북군사회담에 대해 절반 이상(56.3%)이 긍정 평가한 반면 대북제재(-7%)는 하락

5. 결론

- 현재는 한반도 및 주변정세 변화로 인한 대북정책 전환기
 - 탈냉전기 남북관계 규범으로 활용되었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규범적 실효성이, 공식적 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우선적 목표로 ①남북 평화공존과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②남북군사회담에 대한 다수의 공감 주목
- 향후 ①남북간 가치 및 이념 차이와 정치적 적대 극복 ②북한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 군사력 통제 등에 대한 전환적 사고와 전략 마련 필요
-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북교류협력과 북한 변화 촉진 환경부터 구축할 필요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정부 대북정책 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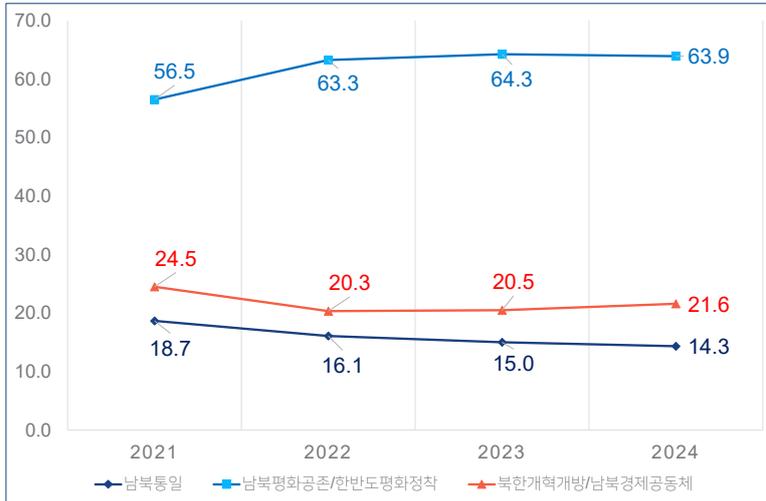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목차

- 1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 2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 3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 4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비핵화 기여 인식
-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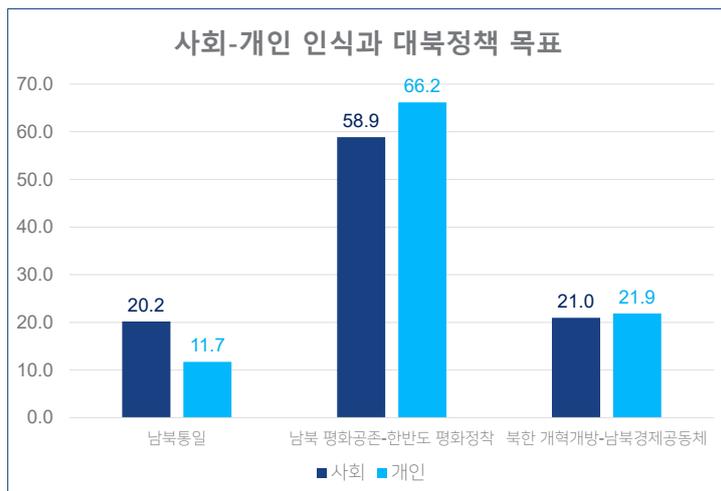
1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 남북간 평화공존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63.9%로,
- 2021년 조사 시작 이후 다수 공감대 지속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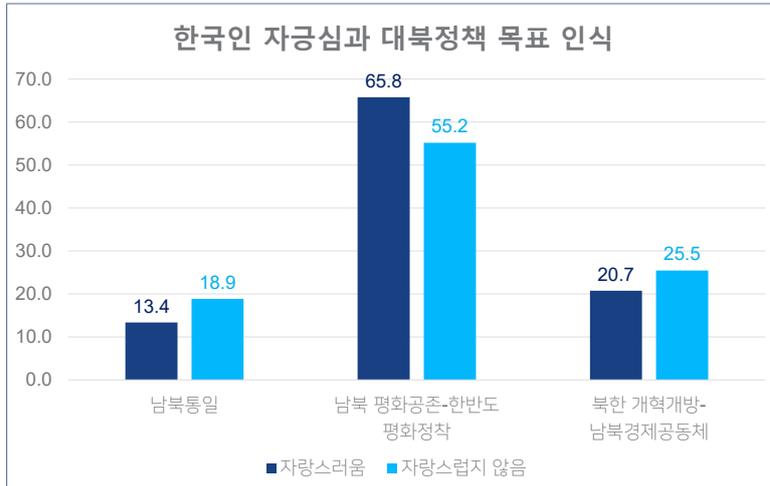
1-1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별 응답자 성향을 보면 상대적으로 사회중시 층에서 남북통일 중시 비중이 높고 (+8.5%)
- 남북 평화공존-한반도 평화정착 지지층에서는 개인을 더 중시(+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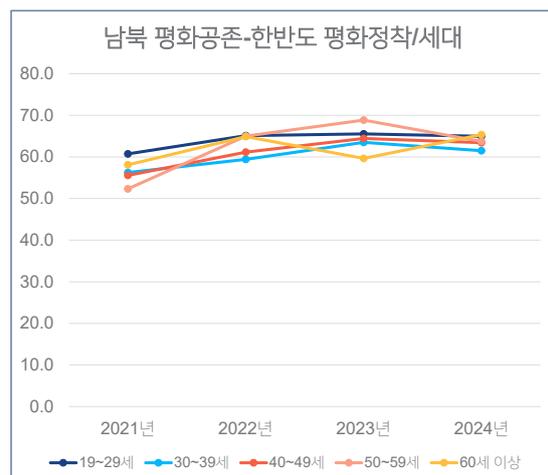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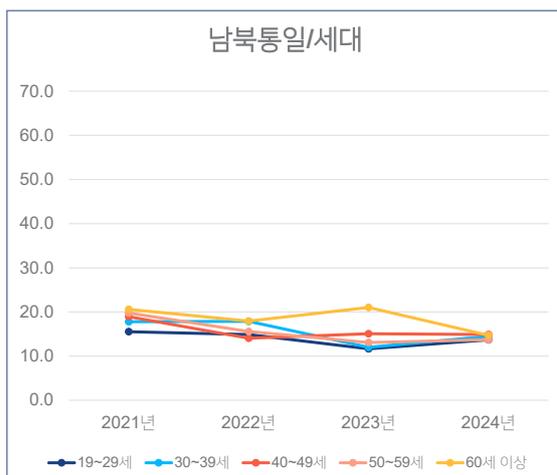
1-2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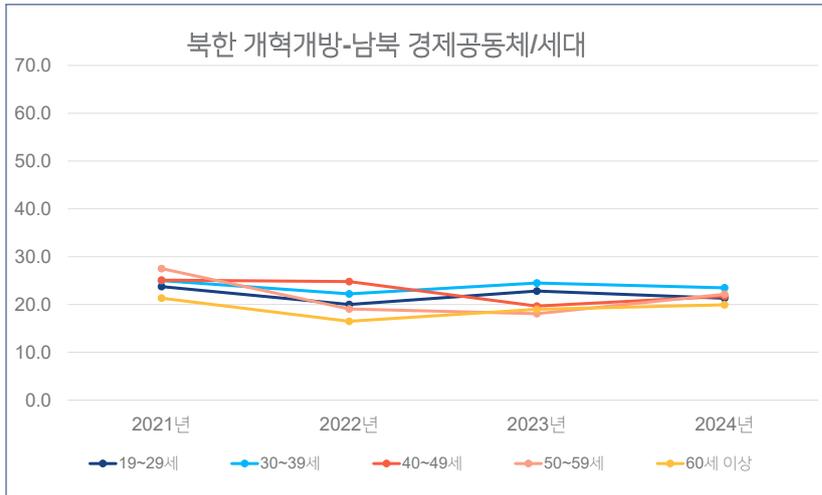
-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층에서 남북 평화공존-한반도 평화정착 지지 비중이 크고(+10.6%)
- 그렇지 않은 경우 남북통일과 북한개혁 개방-남북경제공동체 통합 지지 비중이 큼 (각각 +5.5%와 +4.8%)



1-3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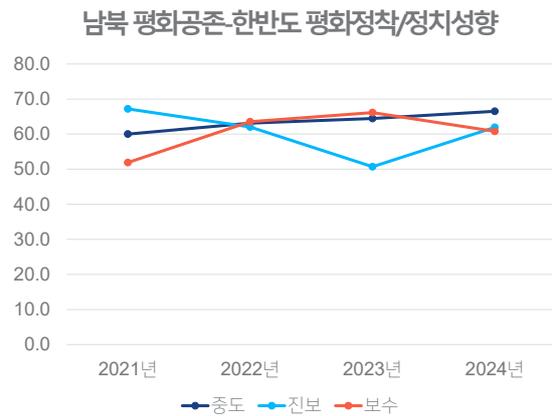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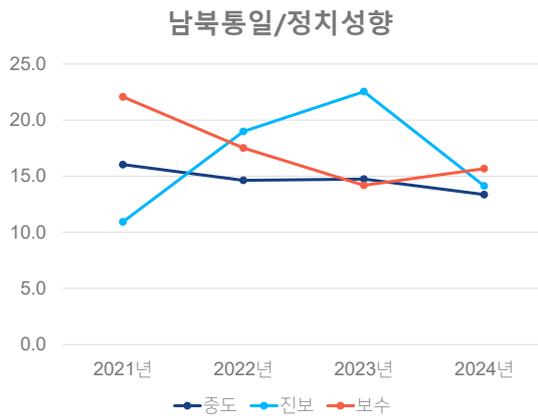


1-3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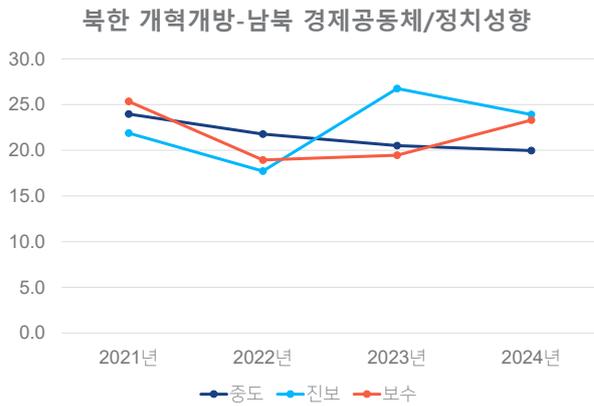


- 최근 한국사회의 세대간 갈등 현안 다수 표면화에도 불구하고,
- 대북정책 목표와 관련해서는 분화보다 수렴 양상

1-4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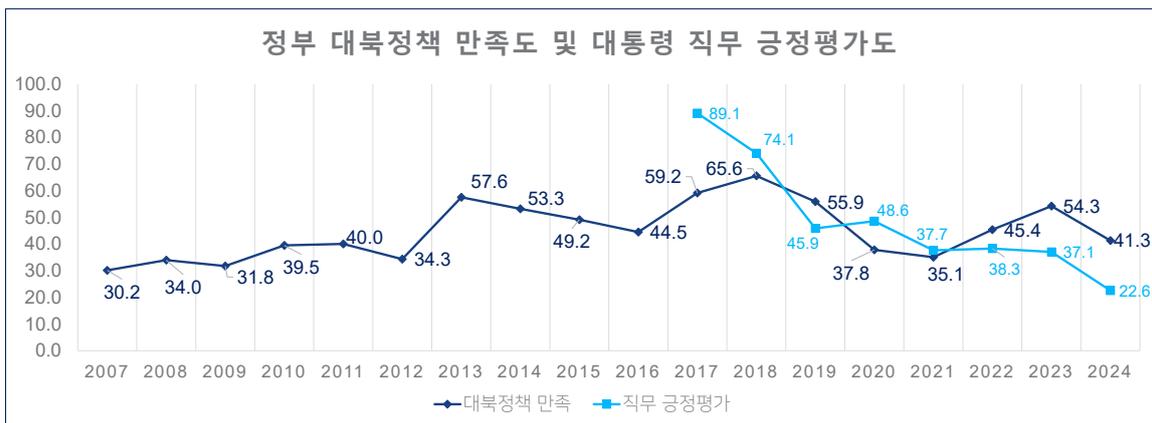


1-4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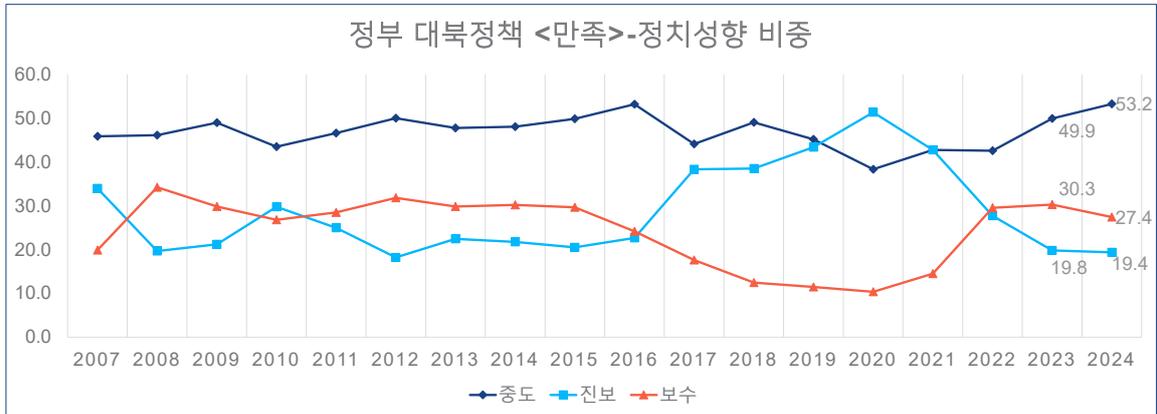
- 최근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 격화 불구,
- 대북정책 목표와 관련해서는 분화 보다 수렴 양상

2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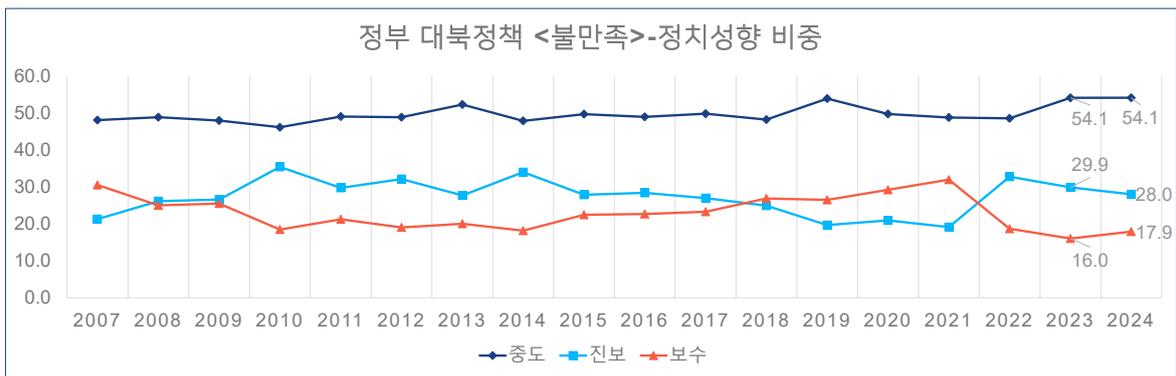
- 2022~2023년 상승이 멈추고 -13%(직무 긍정평가 -14.5%)

2-1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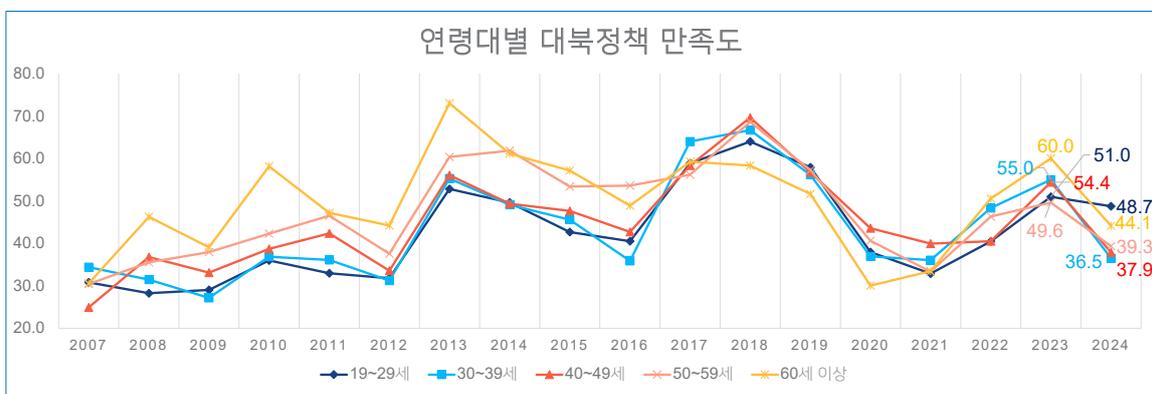
- 정권의 성격에 따른 변동 양상을 지속/2024년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 * 중도 상승(+3.3%), 보수 하락(-2.9)

2-1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 정권의 성격에 따른 변동 양상을 지속/2024년도 전년도와 유사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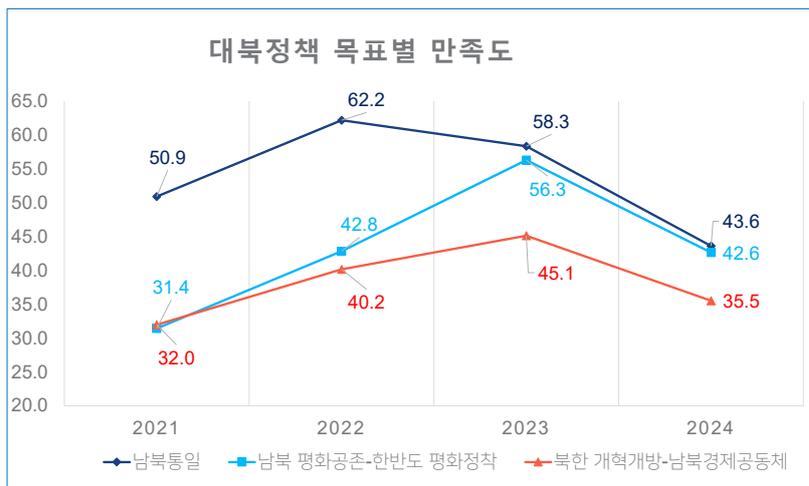
2-2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 2024년 조사에서 연령대별 만족도 차이는 10.8%로, 20대가 48.7%로 가장 높고 40대가 37.9로 가장 낮음 / 2023년에 비해 30대(-18.5%) > 40대(-16.5%) > 60세 이상(-15.9%) > 50대(-10.3%) 순으로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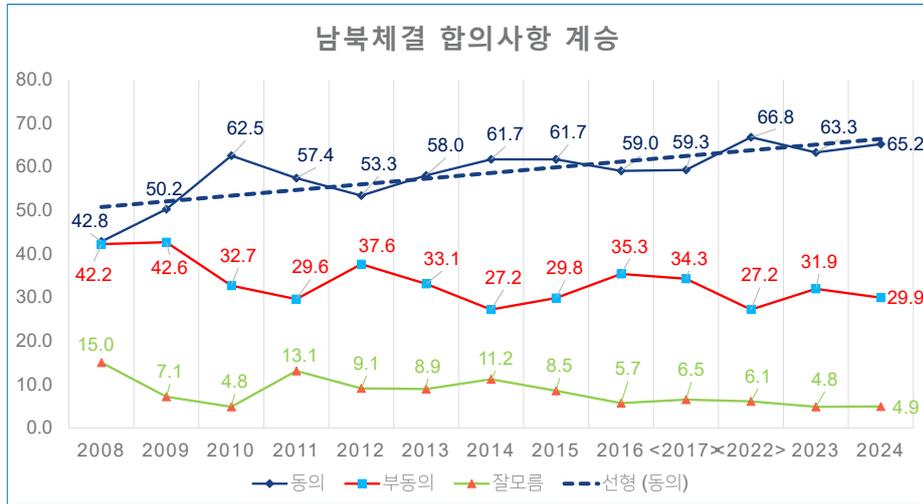
2-3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 대북정책 목표로 남북 통일과 평화 공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지지하는 층이 비슷한 반면
- 상대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공동체 통합 지지층이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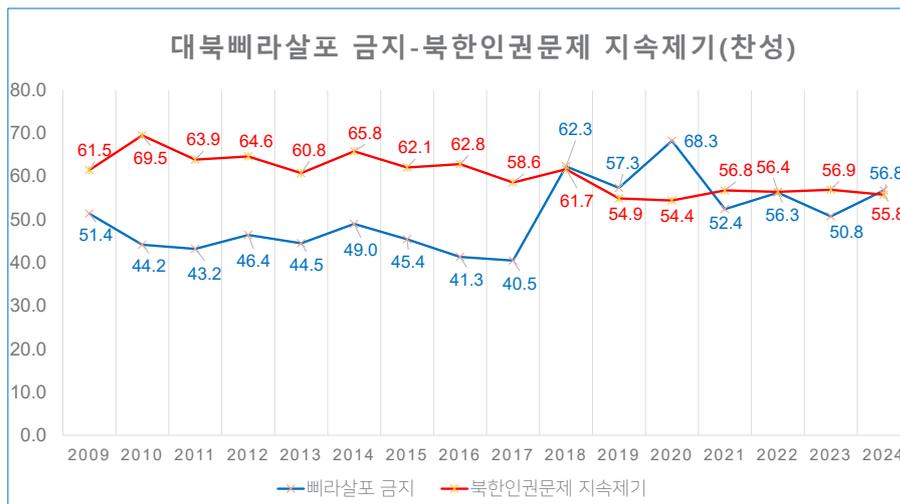
3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합의사항 계승 찬성 60% 중반 지속 유지
- 2008년 이후 상승 추세 지속



3-1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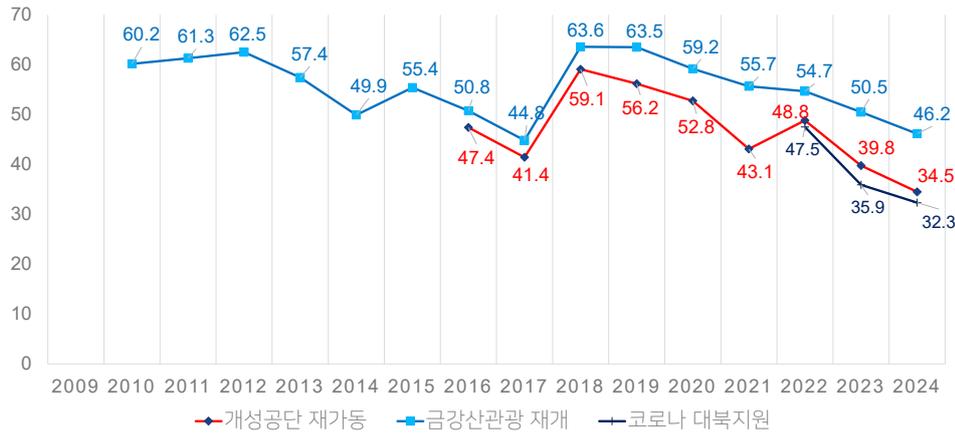


- 대북빼라살포 금지와 북한인권문제 지속제기가 수렴 (2018년 이후 대체로 비슷한 수준)
- 북한인권문제 지속 제기에 다수 공감지속



3-2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관광 재개-코로나 대북지원(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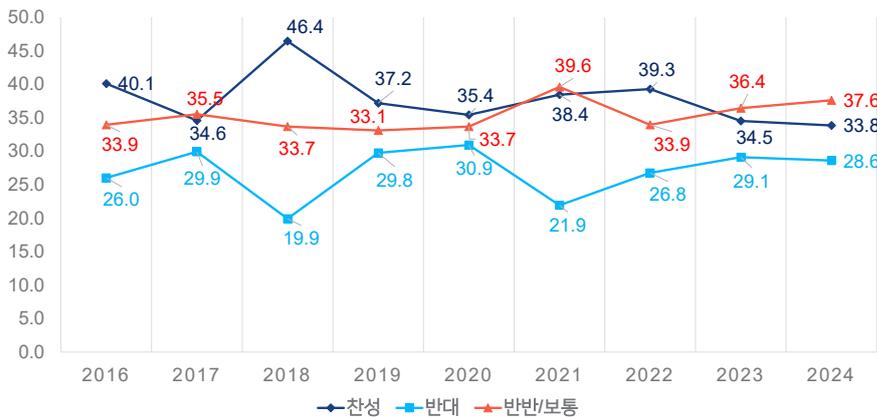


-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이 절반 이하로 처음 하락
-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하락세 지속



3-3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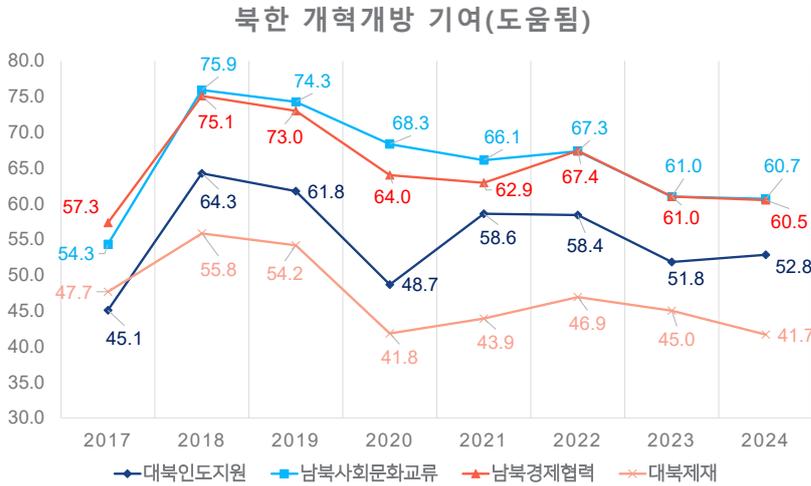
북핵 문제 해결 전 남북교류협력 금지



- 찬성과 반대 비율 모두 작년과 유사
- 판단 유보 반반/보통 비율이 30% 중반 지속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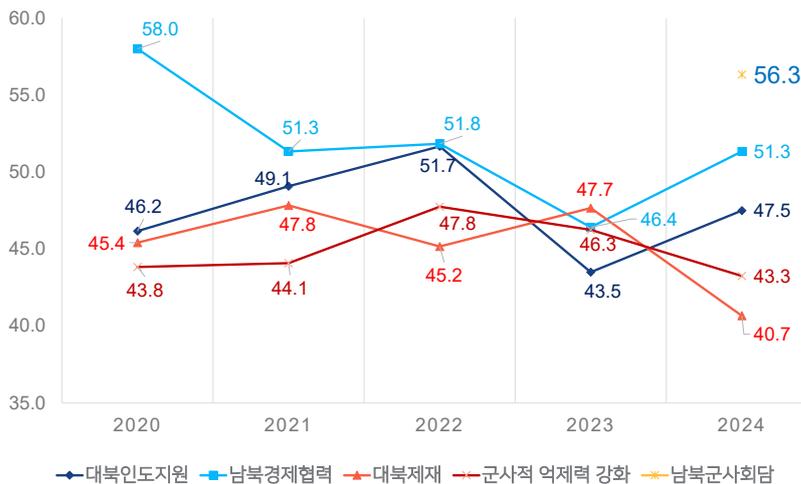
3-4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 남북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긍정평가 비율 60%대 수렴
- 반면 대북제재 긍정평가 비율은 2020년 이후 절반 이하 지속



4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비핵화 기여 인식



- 2024년 신규 조사 남북군사회담 절반 이상 긍정평가
- 남북경제협력(+4.9%), 대북인도 지원(+4.0%) 상승
- 군사억제(-3%), 대북제재(-7%) 하락
- ※ 북한 핵무기 불포기 동의 85.8%(2024년 조사)



5 결론

- 현재는 한반도 및 주변정세 변화로 인한 대북정책 전환기
 - 탈냉전기 남북관계 규범으로 활용되었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규범적 실효성이, 공식적 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실
 - 대북정책의 우선적 목표로 ①남북평화공존과 한반도평화정착 그리고 ②남북군사회담에 대한 다수의 공감 주목
 - ①남북간 가치 및 이념 차이와 정치적 적대 극복 ②북한 핵무기를 비롯,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군사력 통제 등에 대한 전환적 사고와 전략 마련 필요
- ☞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북교류협력과 북한변화 촉진 환경부터 구축할 필요

Thank you



북한이탈 주민인식

최은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요약문)

최은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7년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53%에서 2023년에는 81.5%로 상승했다. 미국 다음으로는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높은 편인데 2007년에는 24%가 북한을 가깝게 느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23년에는 7%만이 북한을 가깝게 느낀다고 답변했다. 일본에 대한 친밀감은 2007년에 11.6%였으나 2022년 5.3%로 낮아졌다가 2023년에는 8.1%로 상승했다. 중국은 2.8%, 러시아는 0.6%의 응답율을 보였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사회적 거리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등락은 있으나 증가추세였지만,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로 변화.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비율은 2024년에 역대 최저치인 17.5%.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율은 30.6%.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1.9%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하게도 친근하지 않게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2017년도에는 미국인에 대한 친근감 다음으로 높았으나 2023년에는 미국인, 동남아시아인, 일본인, 조선족 보다도 낮았다가 2024년도에는 소폭 상승하여 조선족보다는 높게 나타남. 친근하게 느끼는 순: 미국인(31.3%)> 동남아시아인(23.5%)> 일본인(21.9%)> 북한이탈주민 (17.5%)> 조선족(15.5%)> 고려인(9.9%)> 중국인(9.5%) > 중동인(6.6%)
-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탈북민 수용 태도에 대해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2013년 21.8%에서 2024년에는 12.7%로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응답자의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 북한을 적대적 관계로 인식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낮은 경향이 있고, 북한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낮게 나왔는데, 이는 이 연령대의 응답자 중 남북 관계를 적대적 또는 경계 대상으로 여기는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것과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경험이 적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에 따라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다름. 친밀한 관계인 결혼상대자로 관계 맺기를 가장 경계. 북한이탈주민을 결혼상대자로 맞는 것에 대해 '전혀 꺼리지 않는다'는 2007년 7.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 3.0%. '매우 꺼린다'와 '다소 꺼린다'를 합한 비율은 2007년 47.7%에서 증가 추세로 2024년에 52%. 20대와 30대는 각각 63.5%, 54.3%로 다른 세대에 비해 결혼상대자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맺기를 더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는 동네 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 학교 교사, 지역 대표 등 제시된 탈북민과의 모든 사회적 관계 유형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관계 맺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20대는 동네 이웃이나 직장동료로는 덜 꺼리지만 결혼상대자, 학교교사, 지역대표로 관계 맺기를 기성세대보다 더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어 2,30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음. 60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낮음.

소결 및 전망

- 2024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탈북민 적극적 수용에 대한 지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추가 지원에 대한 동의가 모두 전년도 대비 감소.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탈북민에 대한 적극적 수용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던 것과는 다른 경향. 현 정부의 기념일 지정에 따른 국민적 관심 환기의 노력이 사회적 관심으로 이끌어 지는데는 다양한 방안이 더 필요한 것으로 고려됨.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남한 주민의 탈북민 수용 의지 및 정부의 탈북민 추가 지원에 대한 동의는 지난 2년간의 일시적 현상이 되고 다시 부정적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음.
-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대한 의식을 탈북민에 전가하여 보는 경향이 있기에, 남북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탈북민에 대한

친근감을 낮추고 사회적 거리감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2,30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기에 이들이 남북 관계와는 별도로 직접적인 만남이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의 질 좋은 접촉을 할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하고, 이들과 결혼 등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꺼리는 현상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에 동의하는 비율이 다시 낮아지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늘었음에도 탈북민 추가 지원에 동의하는 비율이 감소 추세인 것은 현재 언론 및 정부 정책이 탈북민을 지원 대상으로만 정형화하여 오히려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고 있지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은영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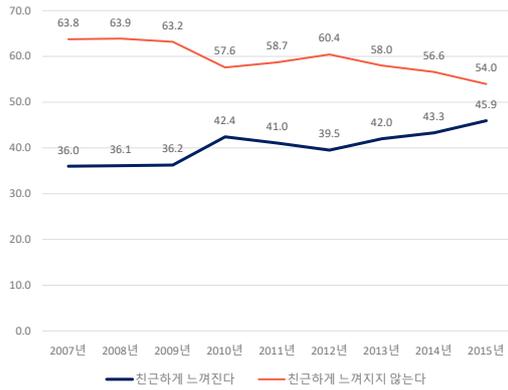
목차

-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사회적 거리감
- 2 탈북민 수용 및 지원에 대한 인식
- 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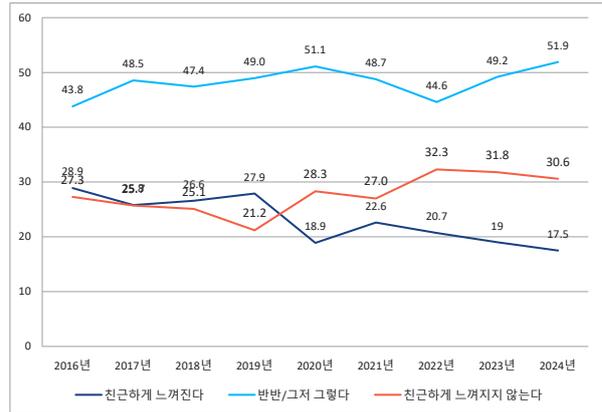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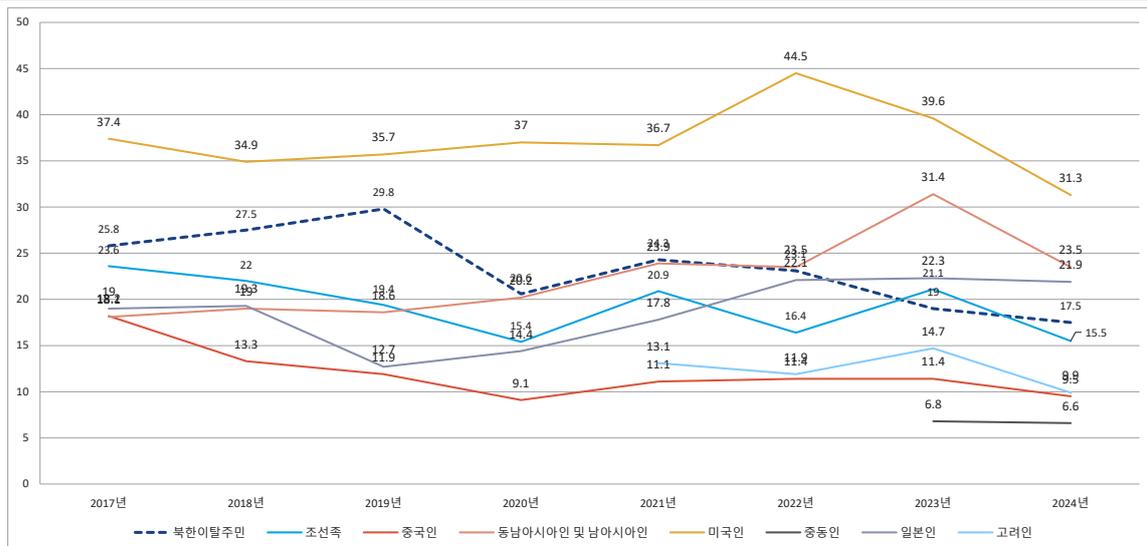
2007-2015



2016-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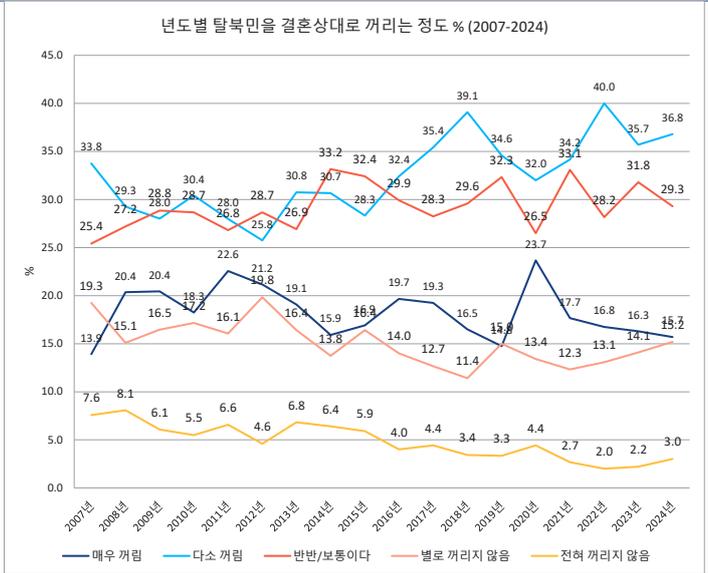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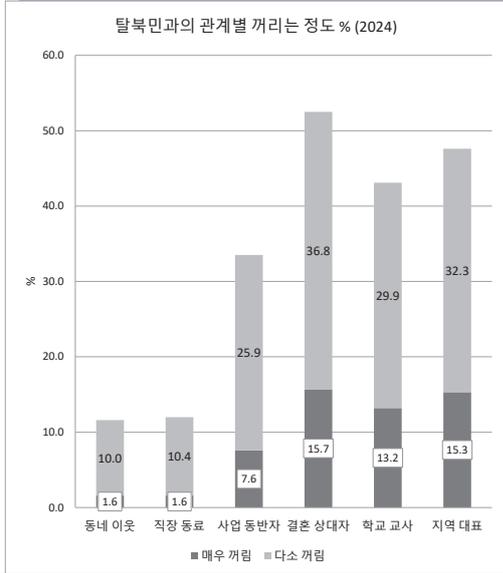


1 한국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



1 탈북민과의 관계별 사회적 거리감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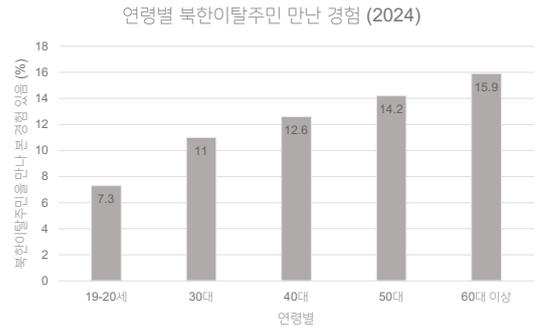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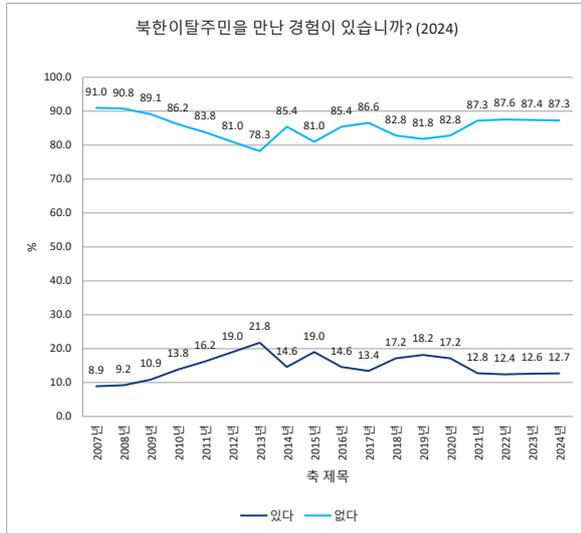
1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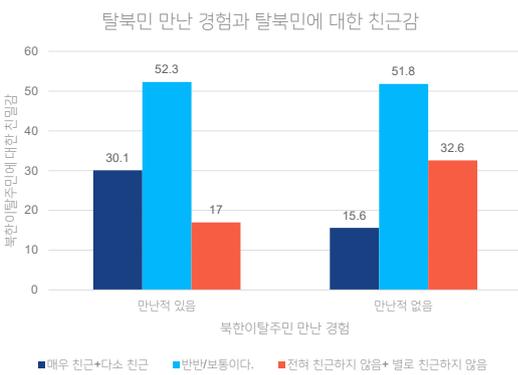
연령대/ 사회적 관계 유형 별 탈북민에 대한 태도 (2024)

		동네이웃으로 꺼림 (%)	직장동료로 꺼림 (%)	사업동반자로 꺼림 (%)	결혼상대자로 꺼림 (%)	학교교사로 꺼림 (%)	지역대표로 꺼림 (%)
연령별	19~29세	9.4	10.7	34.5	54.3	44.6	52.4
	30대	13.7	16.4	39.5	63.5	45.8	52.6
	40대	11.9	10.9	29.2	50.9	42.6	44.0
	50대	10.7	11.3	29.5	50.8	40.6	45.5
	60대 이상	12.3	11.4	35.9	46.9	43.3	45.5

1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경험 (2024)



1 탈북민 만난 경험과 친근감 / 탈북민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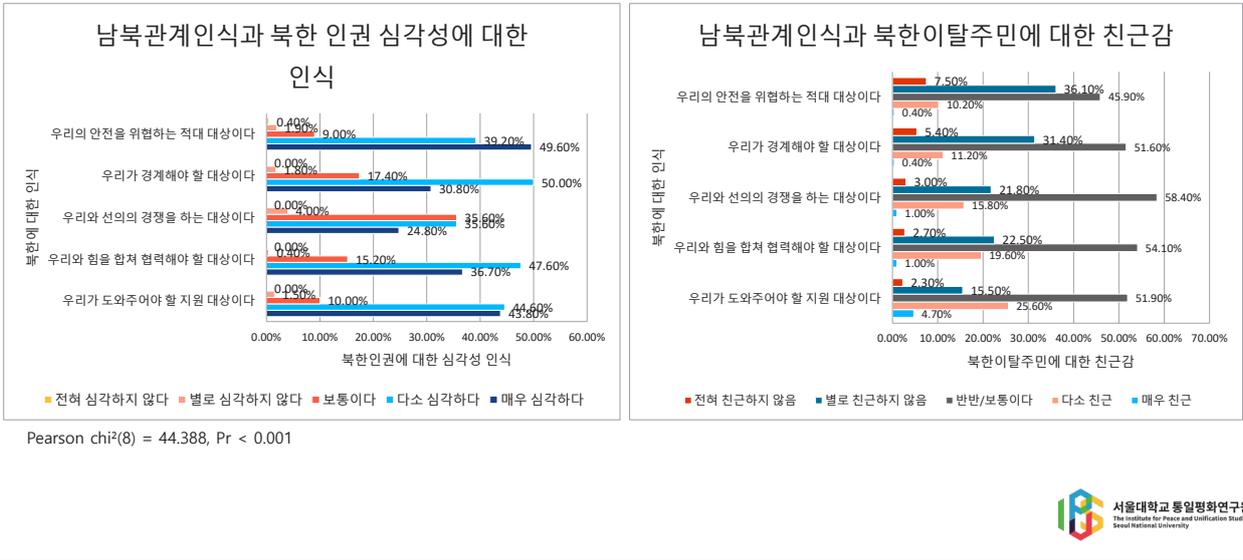


카이제곱(χ²) = 25.856, df = 4, p < 0.001

	있다	없다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견해			전체
			원하는 사람들 은 모두 받아들여 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들 에서 선택적으로 만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받아들 여서는 안 된다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① 북 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경험 중 %	있다	빈도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① 북 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경험 중 %	63 41.4%	72 47.4%	17 11.2%	152 100.0%
	없다	빈도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① 북 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경험 중 %	291 27.8%	622 59.4%	135 12.9%	1048 100.0%
전체	빈도	빈도	354	694	152	1200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① 북 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경험 중 %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① 북 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경험 중 %	29.5%	57.8%	12.7%	100.0%

카이제곱(χ²) = 12.019, df = 2, p = 0.002

남북관계인식과 북한인권 심각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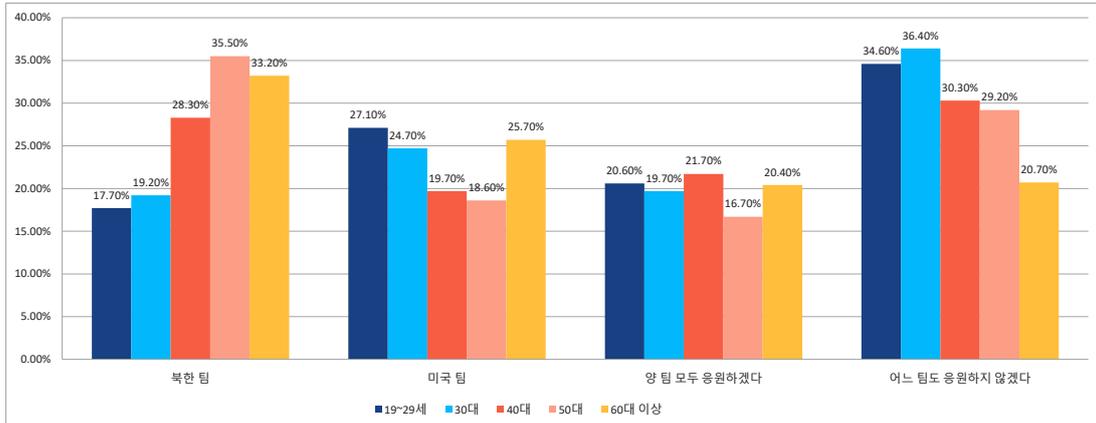


1

연령별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 (2024)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계	
		사례수	%	%	%	%	%	
■ 전체 ■		(1,200)	10.8	39.9	8.4	18.6	100.0	
연령별	19~29세	(198)	6.6	32.9	9.2	21.2	30.1	100.0
	30대	(199)	9.3	35.1	7.0	23.5	25.1	100.0
	40대	(236)	8.5	40.7	13.6	16.7	20.5	100.0
	50대	(264)	11.0	45.2	8.5	19.4	16.0	100.0
	60대 이상	(303)	16.1	42.6	4.8	14.5	2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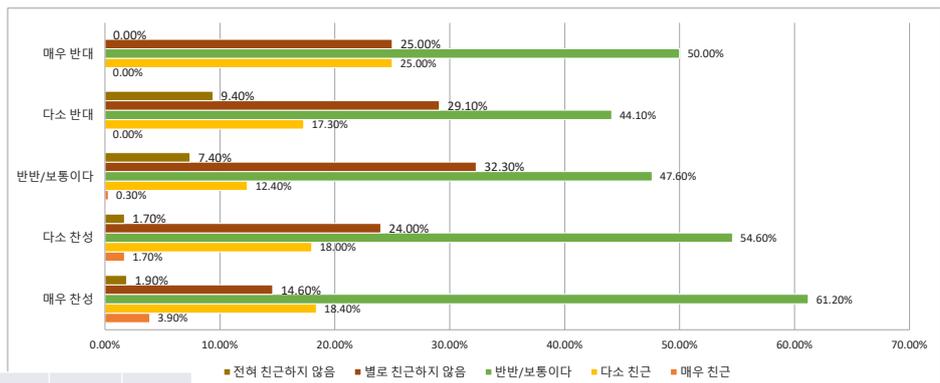
북·미 월드컵 경기 응원하고 싶은 팀은?



1

다문화포용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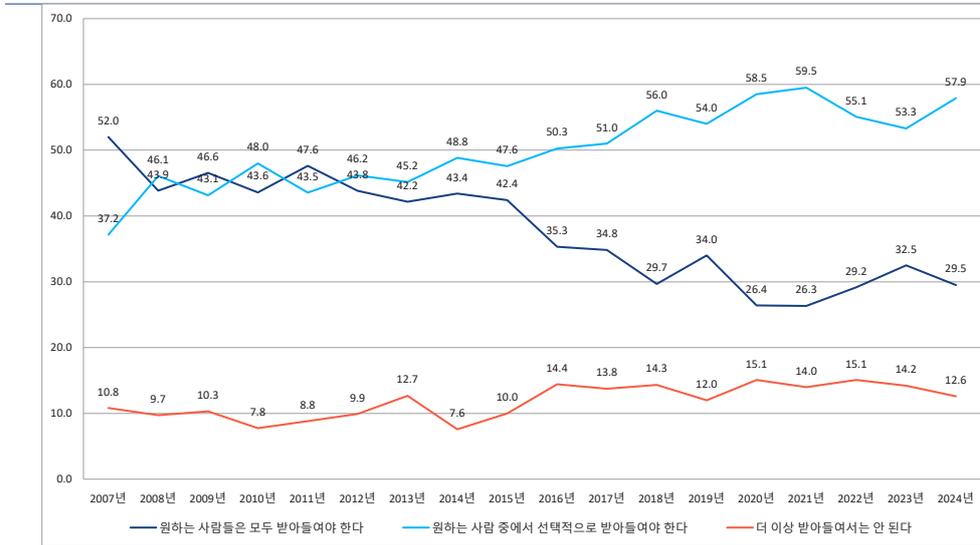
‘어느 국가든 다양한 민족,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P < 0.001



	매우 친근	다소 친근	반반/보통이다	별로 친근하지 않음	전혀 친근하지 않음
매우 찬성	3.90%	18.40%	61.20%	14.60%	1.90%
다소 찬성	1.70%	18.00%	54.60%	24.00%	1.70%
반반/보통이다	0.30%	12.40%	47.60%	32.30%	7.40%
다소 반대	0.00%	17.30%	44.10%	29.10%	9.40%
매우 반대	0.00%	25.00%	50.00%	25.00%	0.00%

2 탈북민 수용에 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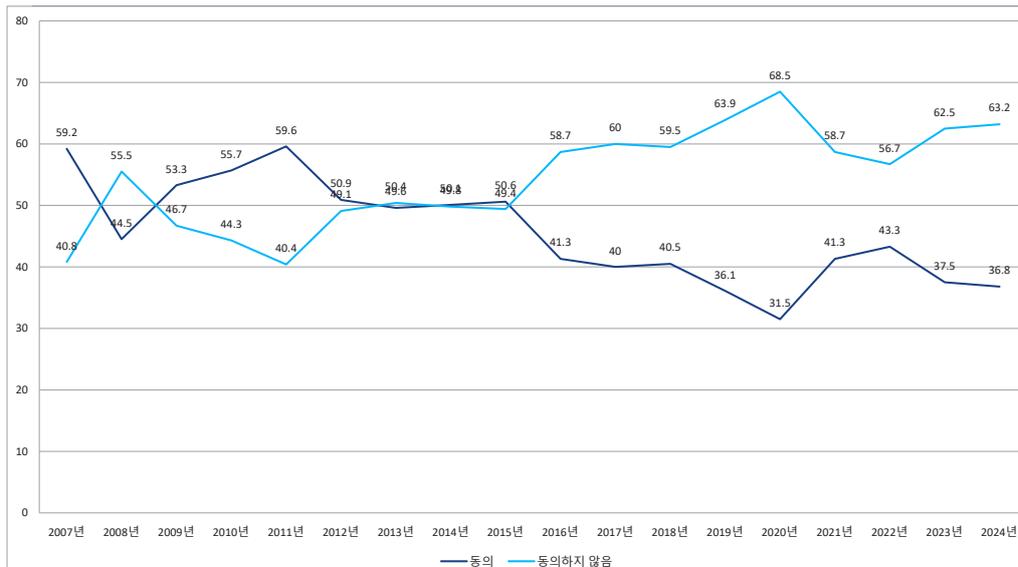
2024 통일인식조사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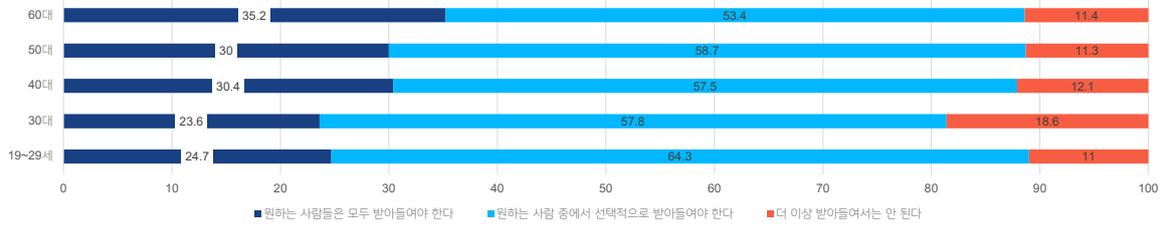
2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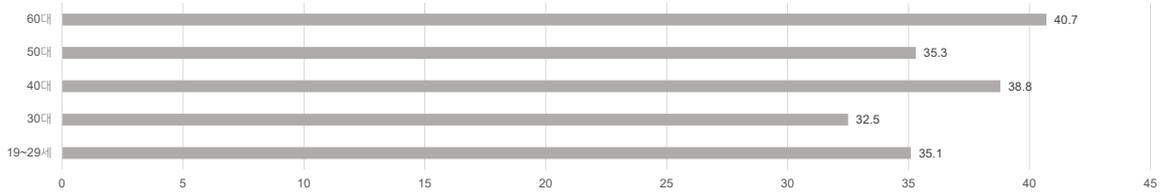
2024 통일인식조사 결과 발표회



연령대별 탈북민 수용에 대한 의견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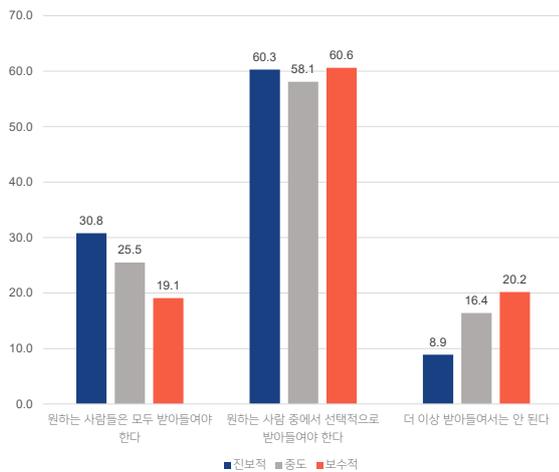


연령대별 탈북민 추가 지원에 대한 동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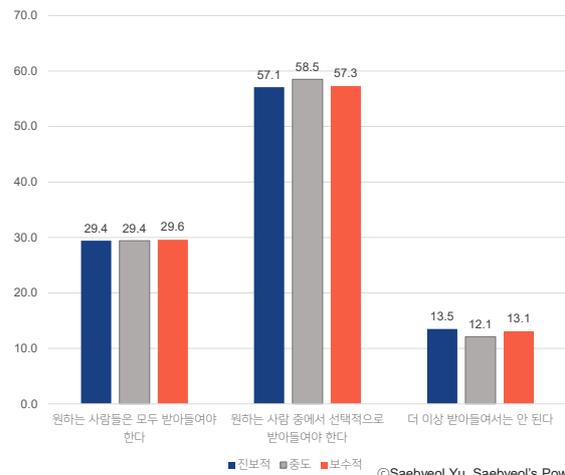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정치 성향별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의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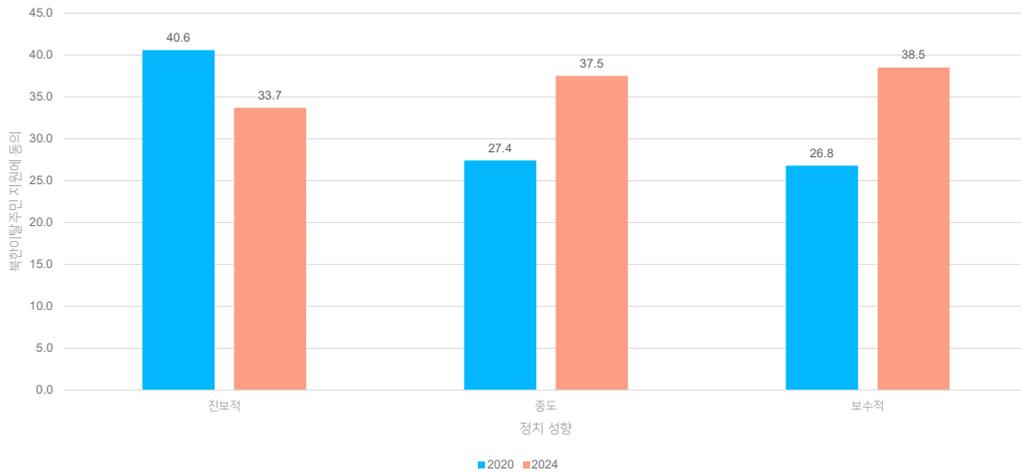
정치 성향별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2024)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2024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정치성향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동의에 대한 의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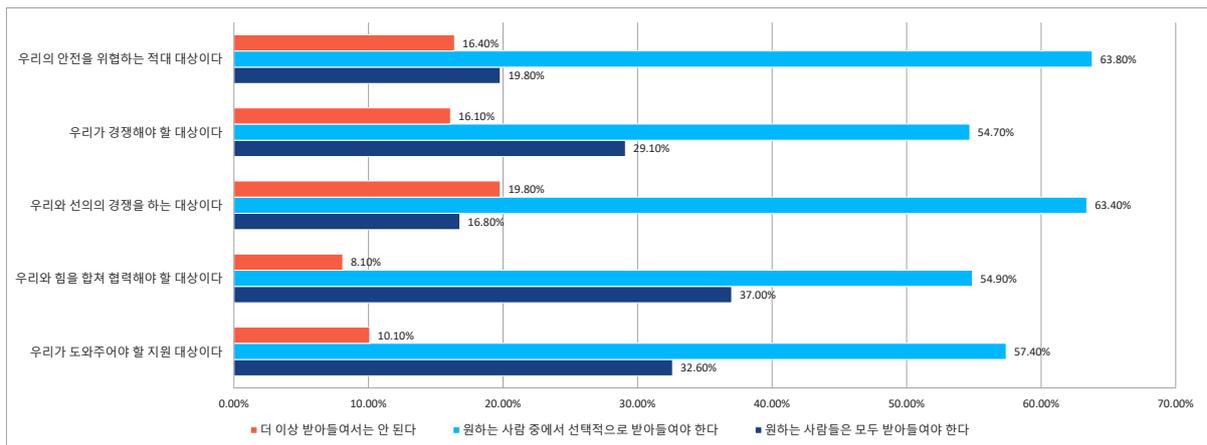


Pr = 0.003



2024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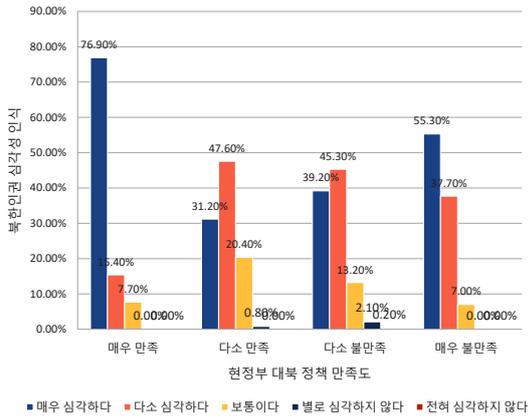
남북관계인식과 탈북민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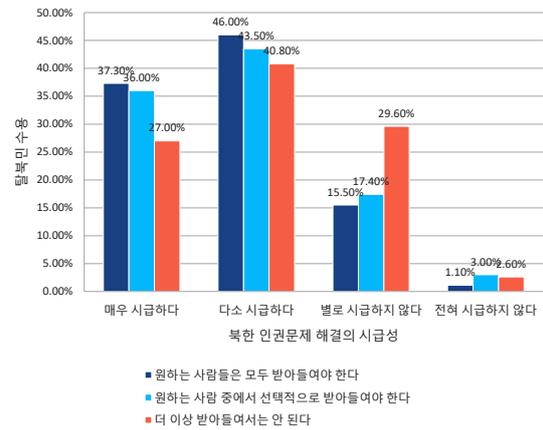
Pearson $\chi^2(8) = 44.388, Pr < 0.001$



현 정부 대북 정책 만족도/ 북한인권 심각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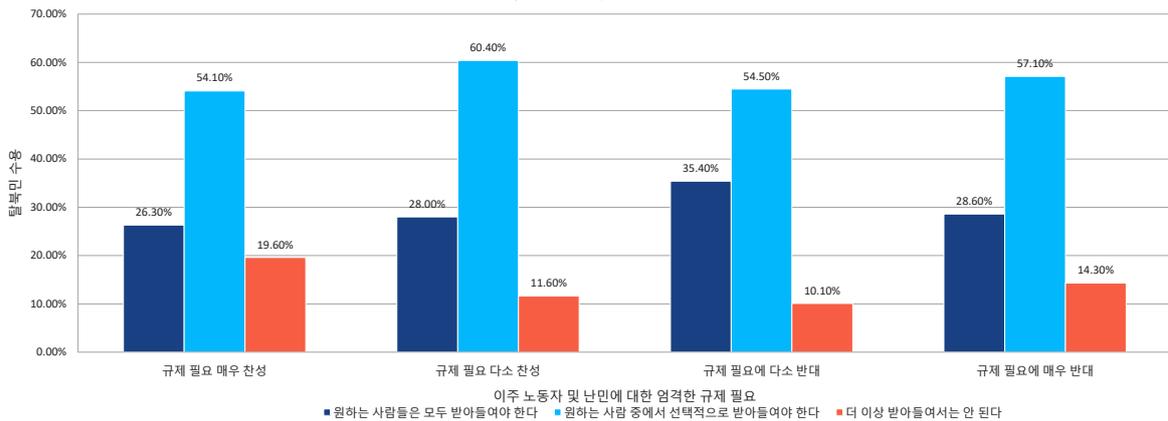


북한 인권문제 해결 시급성/ 탈북민 수용



p=0.003

이주 노동자 및 난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 탈북민 수용



Pearson 2(12) = 14.279, p=0.283

2024 통일인식조사 결과 발표회

북한이탈주민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독같이 경쟁해야 한다에 동의함		독같이 경쟁해야 한다에 동의하지 않음		계
	사례수	%	%	%	
■ 전체 ■	(1,200)	67.4	32.6	100.0	
연령별	19-29세	(198)	65.0	35.0	100.0
	30대	(199)	63.9	36.1	100.0
	40대	(236)	69.0	31.0	100.0
	50대	(264)	69.9	30.1	100.0
	60대 이상	(303)	67.9	32.1	100.0



2024 통일인식조사 결과 발표회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Pr = 0.003

	탈북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에 동의함		탈북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에 동의하지 않음		계
	사례수	%	%	%	
■ 전체 ■	(1,200)	21.9	78.1	100.0	
연령별	19-29세	(198)	14.2	85.8	100.0
	30대	(199)	23.4	76.6	100.0
	40대	(236)	25.1	74.9	100.0
	50대	(264)	23.5	76.5	100.0
	60대 이상	(303)	22.0	78.0	100.0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소결 및 전망

0 2024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탈북민 적극적 수용에 대한 지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추가 지원에 대한 동의가 모두 전년도 대비 감소.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탈북민에 대한 적극적 수용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던 것과는 다른 경향. 현 정부의 기념일 지정에 따른 국민적 관심 환기의 노력이 사회적 관심으로 이끌어 지는데는 다양한 방안이 더 필요한 것으로 고려됨.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남한 주민의 탈북민 수용 의지 및 정부의 탈북민 추가 지원에 대한 동의는 지난 2년간의 일시적 현상이 되고 다시 부정적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음.

0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대한 의식을 탈북민에 전가하여 보는 경향이 있기에, 남북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탈북민에 대한 친근감을 낮추고 사회적 거리감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2,30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기에 이들이 남북 관계와는 별도로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의 질 좋은 접촉을 할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하고, 이들과 결혼 등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꺼리는 현상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에 동의하는 비율이 다시 낮아지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늘었음에도 탈북민 추가 지원에 동의하는 비율이 감소 추세인 것은 현재 언론 및 정부 정책이 탈북민을 지원 대상으로만 정형화하여 오히려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주변국인식

황수환

주변국 관계 인식 (요약문)

황수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①: 친밀국과 위협국

1) 가깝게 느끼는 국가

한국인들이 주변국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는 대상은 본 조사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압도적으로 미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2022년과 2023년 처음으로 80%대를 넘었으며, 2024년 역대 3번째 높은 수치인 79.9%를 나타냈다. 미국 다음으로 일본 9.2%, 북한 7.1%, 중국 3.5%, 러시아 0.3%의 순으로 선택했다. 2022년까지 일본에 비해 북한의 친밀도가 높게 나왔지만, 2023년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올해도 그 현상이 지속되며 북한의 친밀도는 감소하고 있다.

2) 위협적인 국가

한국인은 주변국 가운데 북한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에 2024년 응답자의 50.9%가 북한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로 선택했고, 30.8%가 중국을 위협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상당기간(2007-2017년) 한국인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상대는 북한이었고, 중국은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조사되었는데, 2023년 이후부터 다시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조사됐다. 그리고 9.9%가 러시아를 위협적인 국가로 선택했고 5.4%가 일본을 위협적인 국가로 응답했다. 2021년 이전까지 러시아에 대한 위협적 인식은 1%대 이거나 그 미만이었지만, 2022년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②: 인식과 태도

1) 미국

한국인의 대다수는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16년 이래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0%대를 넘었으며, 2024년에는 84.7%로 조사됐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변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1%는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보았다.

2) 중국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2024년 응답자 가운데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8.7%로 가장 높았고, 경쟁대상이 23.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협력대상은 10.3%, 적대대상은 7.6%이다.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15년 33.9%로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은 '북한을 도울 것이다'는 응답이 55.0%, '한국을 도울 것이다' 0.8%로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경계 인식이 나타났다.

3) 일본

한국인들은 일본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일본에 대한 경쟁대상 이미지는 5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계대상이 24.5%, 협력대상이 18.3%, 적대대상이 4.8%로 조사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일본을 협력대상

응답한 비율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21.8%를 나타냈으나, 2024년에는 이보다 3.5%가 하락한 18.3%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의 54.7%가 경쟁대상으로, 18.2%가 경계대상으로, 8.1%가 적대대상으로 응답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가 72.0%로 나타났고, '한국을 도울 것이다' 11.8%, '중립을 지킬 것이다' 11.7%로 조사됐다.

4) 러시아

러시아에 대해 한국인들은 경계대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러시아에 대한 경계대상 응답이 62.9%로 가장 높았으며, 경쟁대상 16.2%, 적대대상 14.3%, 협력대상 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를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07년 조사 이래 2~6%대였던 것에 반해 2022년에는 12.0%로 처음으로 10%대를 넘은 뒤 2024년 최고치를 나타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에 따른 러시아의 적대적 인식으로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가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북한을 도울 것이다'는 응답은 45.9%로 2023년 대비 13%가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희망 정도

주변국 중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할 것으로 보는 답변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주변국 모두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국이 어느 정도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은 27.1%가 원할 것으로 봤고, 72.9%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러시아, 중국, 일본은 각각 95.7%, 95.5%, 89.0%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2) 주변국에 대한 통일의 협조 필요성

조사 응답자들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2.6%로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통일 협조에 대해서는 2024년 73.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일본 69.2%, 러시아 64.7%의 순으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본에 대한 통일의 협조 필요성은 2020년 49.7%로 최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20%가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4. 주변국과의 협력

1) 통일: 남북/한미/한중 협력

"남북한 통일을 위해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24년 조사에서는 '모두 중요하다'가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미 간 협력' 31.2%, '남북 간 협력' 21.4%, '한중 간 협력' 2.3%의 순으로 조사됐다. '남북 간 협력'은 2020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 비핵화: 한미/한중/한일 협력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6.6%, '한중 간 협력'은 87.9%, '한일 간 협력'은 77.8%로 조사됐다.

3) 북한의 핵 공격 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 조치 가능성

한국이 북핵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이 한국방어를 위해 모든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82.9%, 부정적 응답이 17.1%로 조사됐다. 긍정비율은 2023년 대비 5.8% 감소했다.

5. 미중경쟁 관련

1)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

중국의 부상 즉 중국의 강대국화, 주변국 영향력 확대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중립적 입장이 51.7%로 조사됐고,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은 34.9%, 부정적 응답은 13.4%로 조사됐다.

2) 북중협력 인식

북중협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 92.0%로 응답자 대다수가 북중협력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 미중 갈등 심화 시 한국의 입장

미중갈등 심화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 50.4%,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41.9%,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7.7%로 조사됐다. 중립적 입장에 대해서는 2023년 대비 7.2% 감소했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8.3%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6. 결론: 주요 특징 및 경향

2024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조사를 통해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여론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일본에 대한 적대 및 경계적 인식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본을 적대대상나 경계대상이 아닌 라이벌 즉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20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계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경계이미지가 증가하면서 북중 간의 협력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여 소위 전략적인 균형을 취하려는 모습이 지속됐다. 단, 미중 갈등시 한국의 중립적 입장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변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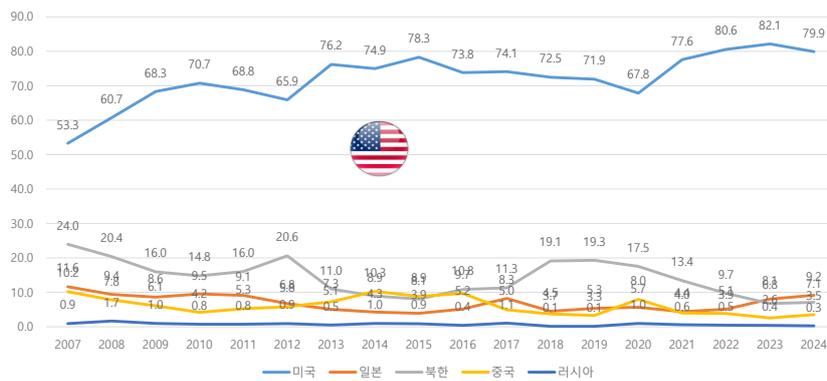
2024 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2024.10.2

황수환(통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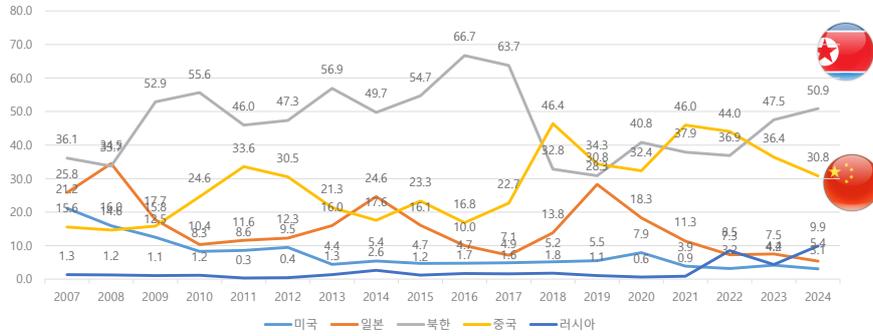
주변국 친밀감



- 미국(79.9%) > 일본(9.2%) > 북한(7.1%) > 중국(3.3%) > 러시아(0.3)
- 2023년 일본과 북한의 친밀감 순위 역전 이후 지속
- 일본에 대한 친밀도
 - 20대(15.4%), 40대(10.7%), 30대(9.8%) vs. 50대(7.1%), 60대 이상(5.5%)
- 북한에 대한 친밀도
 - 20대(4.9%), 30대(4.9%), 60대 이상(6.9%) vs. 50대(9.4%), 40대(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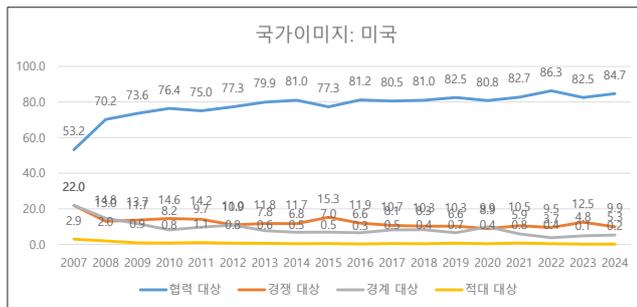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 국가(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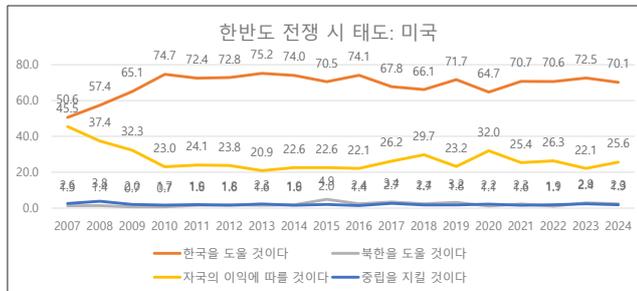


- 북한(50.9%) > 중국(30.8%) > 러시아(9.9%) > 일본(5.4%) > 미국(3.1%)
- 2023년 대비 러시아 위협인식 5.5%, 북한 위협인식 3.4 상승, 중국 위협인식 5.6% 하락
- <세대별 구분>
- 북한의 위협인식: 20대(56.3%) vs. 40대(47.2%)
- 러시아의 위협인식: 20대(6.6%) vs. 30대(13.0%)

국가 이미지/태도: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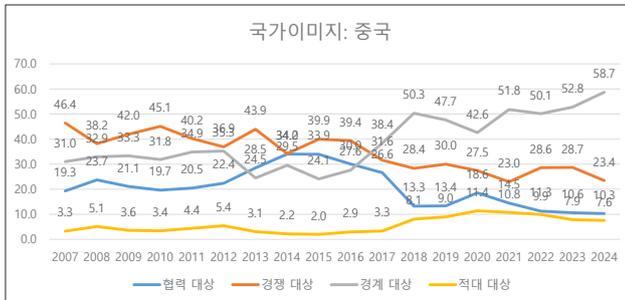


-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80%대 이상으로 협력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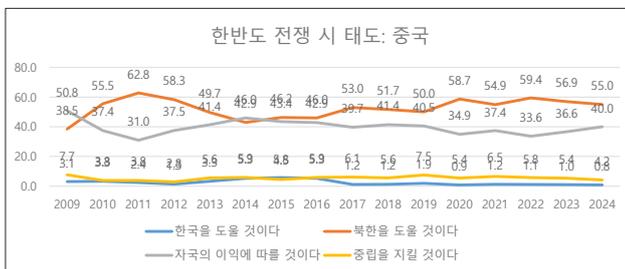
- 한국전쟁 시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 70%대

국가 이미지/태도: 중국



<국가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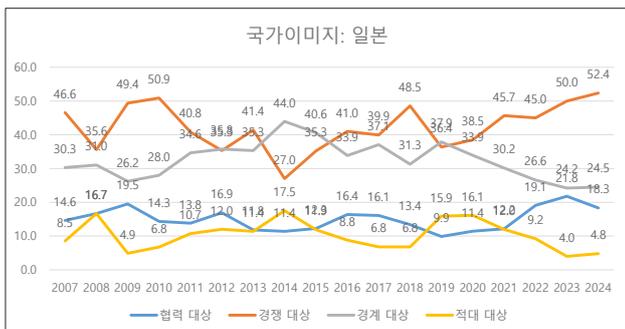
- 경계대상 이미지 지속 상승 (2023년 대비 5.9% 상승)
- 경쟁대상 이미지 하락 (2023년 대비 5.3% 하락)
- 세대별 구분
 - ⇒ 적대대상: 20대(10.3%) vs. 30대(5.7%), 60대 이상(6.8%)
 - ⇒ 경계대상: 20대(56.5%) vs. 30대(60.1%)



<한국전쟁 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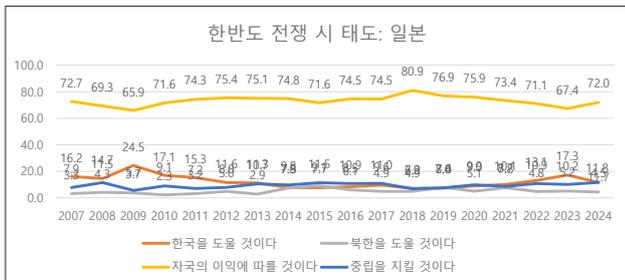
- 세대별 구분
 - ⇒ '북한 도울 것': 40대(60.4%), 20대(57.7%) vs. 30대(49.9%)
 - ⇒ '자국 이익 따를 것': 20대(36.5%), 40대(36.6%) vs. 30대(44.1%)

국가 이미지/태도: 일본



<국가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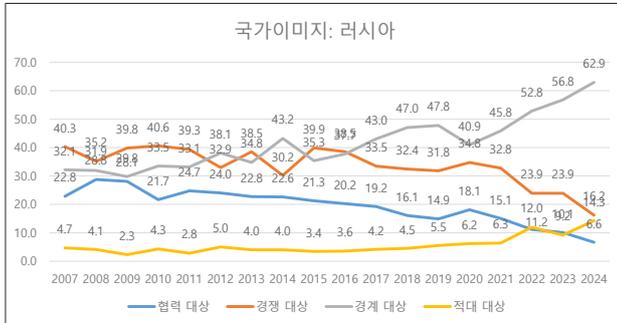
- 경쟁대상 이미지 지속 상승
- 세대별 구분
 - ⇒ 경쟁대상: 20대(54.7%) vs. 40대(49.1%), 30대(51.4%)
 - ⇒ 협력대상: 30대(21.6%), 20대(19.0%) vs. 50대(16.4%), 60대 이상(17.2%)
 - ⇒ 적대대상: 20대(8.1%) vs. 30대(3.1%), 60대 이상(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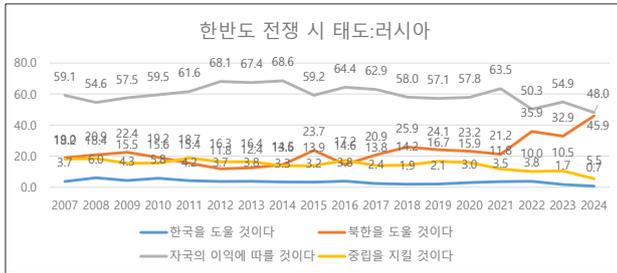
<한국전쟁 시 태도>

- 일본의 이익에 따른 것이다 70%대 유지
- 세대별 구분
 - ⇒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다" 20대(66.3%) vs. 40대(77.4%)
 - ⇒ "한국을 도울 것이다" 20대(14.4%), 40대(13.7%) vs. 30대(8.8%), 50대(9.3%)

국가 이미지/태도: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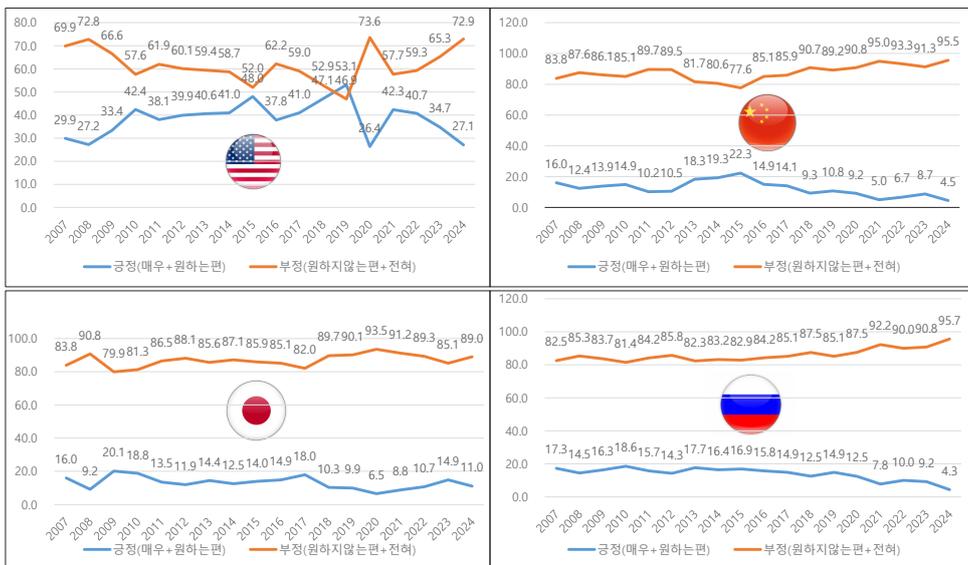


- <국가이미지>
- 경계대상 이미지 지속 상승 (2023년 대비 6.1% 상승)
 - 적대대상 이미지 상승 (2023년 대비 5.1% 상승)
 - 성별 구분
 - ⇒ 협력대상: 남(8.5%) vs. 여(4.7%)
 - 연령별 구분
 - ⇒ 적대대상: 30대(9.9%) vs. 40대(17.2%) / 50대(15.1%), 20대(14.5%), 60대 이상(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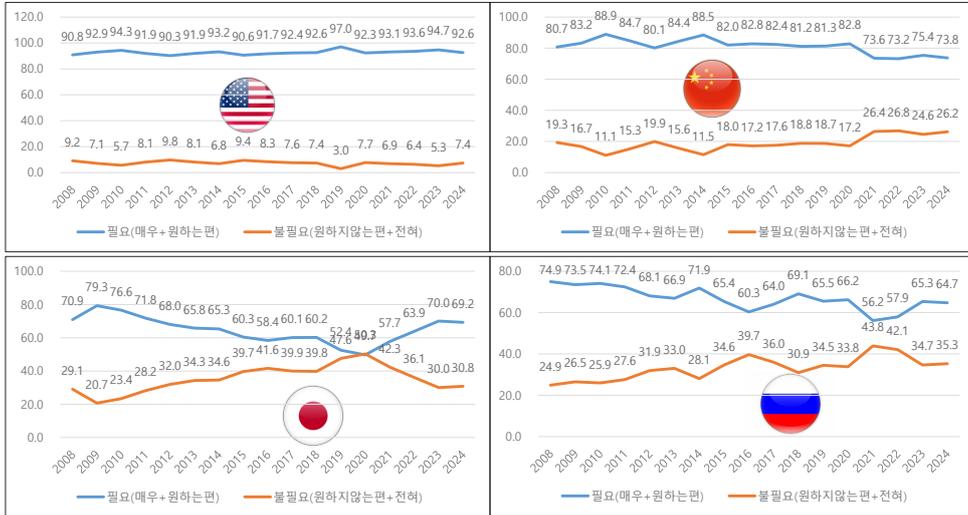
- <한국전쟁 시 태도>
-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다” 2023년 대비 6.9% 하락
 - “북한을 도울 것이다” 2023년 대비 13.0% 상승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희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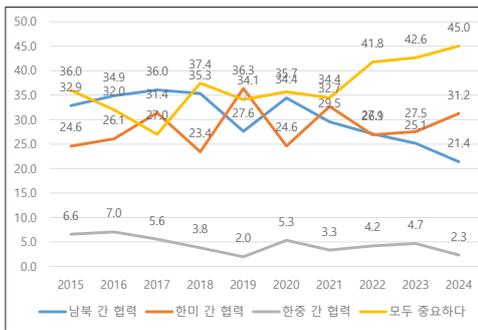
- 2023년 대비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희망 정도 증가

통일 협조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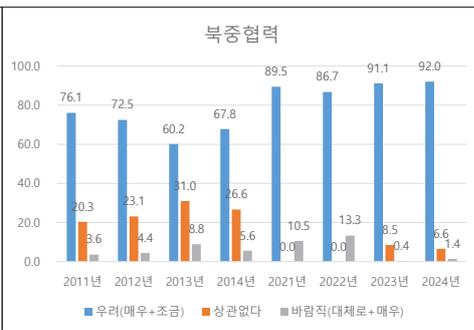


- 대체로 2023년 대비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협조 필요성 감소(하지만 미미한 수준)
- 미국에 대한 한반도 통일협조 필요성: 2023년 대비 2.1% 감소(하지만 90%대 유지)

남북 / 한미 / 한중 협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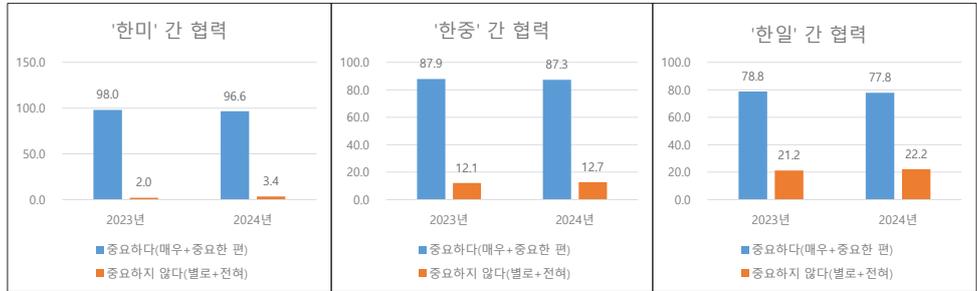


북중 협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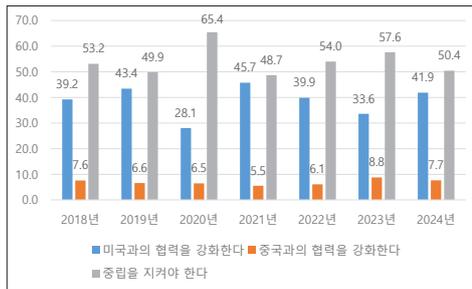
- 남북/한미/한중 간 협력 인식
 - 모두중요(45.0%) > 한미 간 협력(31.2%) > 남북 간 협력(21.4%) > 한중 간 협력(2.3%)
 - '모두 중요' 및 '한미 간 협력' 상승
 - '남북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하락
- 북중 협력 인식
 - 2023년대 대비 우려인식 증가 및 최고수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한중/한일 간 협력 강화 필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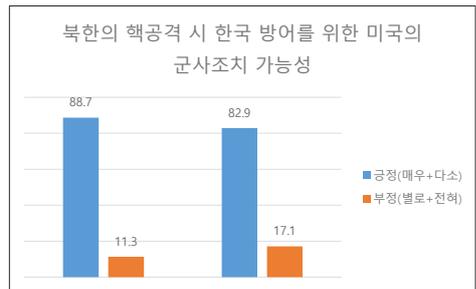
-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96.6%) > 한중(87.3%) > 한일(77.8%) 순으로 협력 필요

미중 갈등과 한국의 입장



- 미중 갈등과 한국의 입장
 - 중립적 입장 감소: 2023년 대비 7.2% 감소
 - 미국과의 협력 강화: 2023년 대비 8.3% 증가

북핵 공격시 한국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



- 북핵 공격시 한국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
 -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 감소: 2023년 대비 5.8% 감소

[2024 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소결

1.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여론 증가 추세 지속
2. 일본에 대한 적대/경계 이미지 감소
3. 중국에 대한 경계 이미지 증가 / 러시아에 대한 경계, 적대 인식 증가(위협, 적대 이미지 역대 최고)
4. 미중 갈등 시 중립적인 입장을 통해 전략적인 균형 도모 선호(단, 중립입장 감소 및 미국과의 협력 강화 증가 추세)



통일북한(정책)인식과 정치적 선택

이성우

통일북한(정책)인식과 정치적 선택 (요약문)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1. 20대 대선의 후보선택과 통일북한인식의 편차

- 2022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선택을 기준으로 통일북한 인식에 대한 편차를 확인하였음
- 통일 의견에서는 양 후보 선택한 모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문항은 '여건 성숙 후 점진적 통일'(이재명-47.96%, 윤석열- 49.5%)이며,
- 통일필요성 문항에서는 '약간 필요'(이재명- 31.83%, 윤석열 - 34.13%)
- 북핵위협인식에서는 '다소 위협'(이재명-53.33%, 윤석열-55.29%)
- 모두 2% 내외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

2. 20대 대선의 후보선택과 대북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의 편차

- 인도적 지원의 시급성 문항에서는 다소시급(이재명-42.98%, 윤석열 34.33%), 별로 시급않음(이재명-39.09%, 윤석열 47.11%)
- 사회문화교류의 시급성 문항에서는 다소시급(이재명-52.05%, 윤석열 48.70%), 별로 시급않음(이재명-27.96%, 윤석열 36.93%)
- 경제협력의 시급성 문항에서는 다소시급(이재명-50.54%, 윤석열 47.31%), 별로 시급않음(이재명-26.88%, 윤석열 35.13%)
- 정기회담의 시급성 문항에서는 다소시급(이재명-51.40%, 윤석열 44.71%), 별로 시급않음(이재명-32.47%, 윤석열 41.92%)
- 통일북한인식보다는 양 후보 선택에 따른 편차가 큼

3. 통일북한인식과 정치이념

- 통일북한인식(2017~2024)이 정치이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유의미한 편차를 보이는 항목은 통일의 필요성이었음 진보와 보수가 명확하게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2023년과 2024년 분석에 따르면, 정치이념별로 유의미한 편차를 보이는 것은 대북정책만족도 하나임
- 통일필요성 등 통일북한관련 개별인식에 따른 정치이념별 편차는 사라짐

4. 대북정책인식과 정치이념

- 대북정책인식(2017~2024)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시급성, 경제협력의 시급성, 정기회담의 시급성 등에서 정치이념별 편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 반면에, 2024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기회담의 시급성에서만 유의미한 진보와 보수간의 차이가 드러남

5. 통일북한(정책)인식과 정당선택

- 2023년 분석에서는 정치성향에 따른 정당 선택이 가장 명확함
- 통일북한 인식 중에서는 민주당 선택에는 통일필요성, 국민의 힘 선택에서는 대북정책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줌
- 대북정책인식에서는 정치이념이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민주당 선택에는 인도적 지원의 시급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줌
- 2024년도 분석에서는 정치이념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줌

6. 결론

- 통일문제에 대한 개별 인식과 의견이 정치이념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
- 정부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인 대북정책만족도에서 평가가 갈림
- 대북 정책에 대한 찬반의 형태로 정치인식에 반영되는 경향
- 대통령 후보 선택과 지지정당 또는 투표정당 선택에 있어서도 통일북한 이슈의 영향력은 감소
- 대북정책만족도로 수렴되는 것은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판단이 정치이념과 지지정당 선택의 구성요소로 기능은 하지만 주요 이슈로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통일북한(정책)인식과 정치적 선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우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목차

- 1 분석개요
- 2 통일북한(정책)인식과 20대 대선 선택
- 3 통일북한(정책)인식과 정치이념
- 4 통일북한(정책)인식과 정당선택
- 5 결론



1 분석 개요

- 분석내용 : 정치성향별 통일북한(정책)인식의 차이와 지지정당과 투표정당 선택에 미치는 영향
- 분석방법 : 로지스틱 회귀분석
- 통일 북한인식 : 통일필요성, 통일의견, 북핵위협인식, 대북정책만족도
- 대북정책인식 : 인도적지원 시급성, 사회문화교류 시급성, 경제협력시급성, 정기회담시급성
- 통제변수 : 성별, 세대, 교육수준, 소득수준, 사회계급인식

통일북한(정책)인식과 20대 대선 선택

2 통일북한인식과 20대 대선 선택

2024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 통일의견

항목	비율	
	이재명 선택	윤석열 선택
어떠한 대가에도 가능한 빨리	3.23	4.59
가능한 빨리	17.20	11.98
여건 성숙후 점진적	47.96	49.50
현재대로	23.44	25.55
통일에 관심 별로 없다	8.17	8.38

• 통일필요성

항목	비율	
	이재명 선택	윤석열 선택
매우 필요	17.20	13.77
약간 필요	31.83	34.13
그저 그렇다	27.74	25.55
별로 필요없다	19.14	21.96
전혀 필요없다	4.09	4.59

• 북핵위협인식

항목	비율	
	이재명 선택	윤석열 선택
매우 위협	24.09	29.54
다소 위협	53.33	55.29
별로 위협아님	20.86	14.17
전혀 위협아님	1.72	1



2 대북정책인식과 20대 대선선택

2024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 인도적 지원 시급성

항목	비율	
	이재명 선택	윤석열 선택
매우 시급	11.88	9.78
다소 시급	42.98	34.33
별로 시급않다	39.09	47.11
전혀 시급않다	6.05	8.78

• 사회문화교류 시급성

항목	비율	
	이재명 선택	윤석열 선택
매우 시급	16.99	11.38
다소 시급	52.05	48.70
별로 시급않다	27.96	36.93
전혀 시급않다	3.01	2.99

• 경제협력 시급성

항목	비율	
	이재명 선택	윤석열 선택
매우 시급	19.14	12.57
다소 시급	50.54	47.31
별로 시급않다	26.88	35.13
전혀 시급않다	3.44	4.99

• 정기회담 시급성

항목	비율	
	이재명 선택	윤석열 선택
매우 시급	12.69	10.18
다소 시급	51.40	44.71
별로 시급않다	32.47	41.92
전혀 시급않다	3.44	3.19



통일북한(정책)인식과 정치이념



2 통일북한인식과 정치이념(2017~2024)

	모델1 (진보)		모델2 (중도)		모델3 (보수)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통일필요성	0.143*** (0.0392)	1.15	-0.0397 (0.0340)	0.96	-0.0994* (0.0411)	0.90
어떤 대가에도 가능한 탈리 통일	0.339 (0.224)	1.40	-0.0418 (0.204)	0.95	-0.348 (0.249)	0.70
	0.242 (0.163)	1.27	-0.0516 (0.145)	0.94	-0.199 (0.177)	0.81
	0.0125 (0.130)	1.01	0.0812 (0.114)	1.08	-0.127 (0.141)	0.88
현재대로	-0.0278 (0.127)	0.97	0.0479 (0.110)	1.04	-0.0406 (0.138)	0.96
북핵위협인식	-0.0666 (0.0479)	0.93	-0.0270 (0.0423)	0.97	0.114* (0.0522)	1.12
대북정책만족도	-0.0487 (0.0473)	0.95	-0.0598 (0.0415)	0.94	0.141** (0.0506)	1.15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진보와 보수의 상반된 의견 명확
- 보수의 북핵위협인식 더 명확



2 통일북한인식과 정치이념(2023)

2024 통일외식조사 결과발표회

	모델1 (진보)		모델2 (중도)		모델3 (보수)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통일필요성	-0.00451 (0.0790)	0.99	0.0686 (0.0664)	1.07	-0.110 (0.0807)	0.89
어떤 대가에도 가능한 빨리 통일	0.817 (0.469)	2.26	-0.250 (0.412)	0.77	-0.594 (0.561)	0.55
통일의견 (base_통일관 심없음)	가능한 빨리 통일 0.839* (0.335)	2.31	-0.509 (0.280)	0.60	-0.110 (0.342)	0.89
여건성숙점진 통일	0.453 (0.274)	1.57	-0.219 (0.225)	0.80	-0.153 (0.286)	0.85
현재대로	0.294 (0.268)	1.34	-0.220 (0.219)	0.80	0.0173 (0.280)	1.01
북핵위협인식	-0.158 (0.0936)	0.85	0.0252 (0.0815)	1.02	0.124 (0.105)	1.13
대북정책만족도	-0.326*** (0.0978)	0.72	-0.115 (0.0842)	0.89	0.552*** (0.110)	1.73

- 개별 통일북한인식의 상관성 없음
- 대북정책만족도에서 진보와 보수의 상반된 평가 명확



2 통일북한인식과 정치이념(2024)

2024 통일외식조사 결과발표회

	모델1 (진보)		모델2 (중도)		모델3 (보수)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통일필요성	0.0828 (0.0813)	1.08	-0.107 (0.0693)	0.89	0.0723 (0.0860)	1.07
어떤 대가에도 가능한 빨리 통일	-0.0613 (0.449)	0.94	0.326 (0.393)	1.38	-0.489 (0.492)	0.61
통일의견 (base_통일관심 없음)	가능한 빨리 통일 -0.372 (0.355)	0.68	0.0877 (0.300)	1.09	0.156 (0.356)	1.16
여건성숙점진 통일	-0.222 (0.250)	0.80	0.323 (0.219)	1.38	-0.229 (0.274)	0.79
현재대로	-0.337 (0.239)	0.71	0.360 (0.207)	1.43	-0.170 (0.259)	0.84
북핵위협인식	0.0841 (0.102)	1.08	-0.0312 (0.0878)	0.96	-0.0540 (0.110)	0.94
대북정책만족도	-0.531*** (0.101)	0.58	0.0653 (0.0855)	1.06	0.500*** (0.109)	1.64

- 2023년 결과와 동일
-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수렴
- 정부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요인으로 작용
- 통일북한 관련 개별 인식에서의 편차는 사라짐



2 대북정책인식과 정치이념(2017~2024)

	모델1 (진보)		모델2 (중도)		모델3 (보수)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인도적 지원시급성	0.143*** (0.0351)	1.15	-0.00951 (0.0316)	0.99	-0.162*** (0.0401)	0.85
사회문화교류시급성	0.0411 (0.0434)	1.04	-0.0559 (0.0388)	0.94	0.0289 (0.0489)	1.02
경제협력 시급성	0.170*** (0.0433)	1.18	-0.0373 (0.0387)	0.96	-0.153** (0.0489)	0.85
정기회담 시급성	0.299*** (0.0381)	1.34	-0.152*** (0.0339)	0.85	-0.128** (0.0427)	0.88

-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정기회담 이슈에 대한 상반된 입장 명확

2 대북정책인식과 정치이념(2024)

	모델1 (진보)		모델2 (중도)		모델3 (보수)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인도적 지원시급성	0.0973 (0.108)	1.10	-0.0547 (0.0928)	0.94	-0.0314 (0.115)	0.96
사회문화교류시급성	-0.0208 (0.141)	0.97	-0.160 (0.120)	0.85	0.282 (0.149)	1.32
경제협력 시급성	0.0466 (0.142)	1.04	-0.0811 (0.121)	0.92	0.0728 (0.149)	1.07
정기회담 시급성	0.417*** (0.114)	1.51	-0.0924 (0.0964)	0.91	-0.346** (0.121)	0.70

- 정기회담에 대한 입장차이만 유지
- 남북회담 자체에 대한 입장이 가장 명확

통일북한(정책)인식과 정당선택



2 통일북한인식과 지지정당(2023)

		모델1 (민주당 선택)		모델2 (국민의힘 선택)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정치성향 (base_보수)	진보	2.673*** (0.147)	14.4	-2.143*** (0.127)	0.11
	중도	1.080*** (0.143)	2.94	-1.864*** (0.101)	0.15
통일필요성		0.122* (0.0497)	1.12	-0.0525 (0.0513)	0.94
어떤 대가에도 가능한 빨리 통일		0.440 (0.288)	1.55	-0.128 (0.316)	0.87
통일의견 (base_통일관심없음)		0.416* (0.211)	1.51	0.115 (0.221)	1.12
가능한 빨리 통일		0.162 (0.176)	1.17	-0.0319 (0.181)	0.96
여건성숙점진통일		-0.0265 (0.176)	0.97	0.115 (0.178)	1.12
현재대로		-0.234*** (0.0607)	0.79	0.0580 (0.0646)	1.05
북핵위협인식		-0.00989 (0.0612)	0.99	0.201** (0.0622)	1.22
대북정책만족도					

- 정치이념의 영향이 명확
- 민주당은 통일의 필요성, 북핵위협인식의 영향
- 국민의 힘은 대북정책만족도가 영향



2 대북정책인식과 지지정당(2023)

종속변수	모델1 (민주당 선택)		모델2 (국민의 힘 선택)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진보	2.673*** (0.147)	14.4	-2.100*** (0.127)	0.12
중도	1.092*** (0.143)	2.98	-1.865*** (0.100)	0.15
인도적 지원시급성	0.173** (0.0627)	1.18	-0.125 (0.0660)	0.88
사회문화교류시급성	0.0560 (0.0782)	1.05	0.0213 (0.0823)	1.02
경제협력 시급성	-0.00255 (0.0781)	0.99	-0.0244 (0.0831)	0.97
정기회담 시급성	0.122 (0.0706)	1.13	-0.0879 (0.0730)	0.91

- 2023년 지지정당 선택에 있어서 대북정책이슈 중 인도적 지원의 시급성 변수만 영향확인

2 대북정책인식과 투표정당(2024)

	모델1 (민주당 선택)		모델2 (국민의 힘 선택)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진보	2.569*** (0.240)	13.05	-2.692*** (0.236)	0.06
중도	1.092*** (0.224)	2.97	-2.442*** (0.181)	0.08
인도적 지원시급성	-0.00222 (0.110)	0.99	0.0123 (0.125)	1.01
사회문화교류시급성	0.223 (0.141)	1.25	-0.132 (0.161)	0.87
경제협력 시급성	-0.00938 (0.142)	0.99	-0.150 (0.162)	0.86
정기회담 시급성	0.0924 (0.114)	1.09	-0.00994 (0.131)	0.99

- 2024년 지지정당 선택에 있어서 대북정책이슈의 유의미한 영향 확인안됨

2 결론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 통일문제에 대한 개별 인식과 의견이 정치이념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
- 정부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인 대북정책만족도에서 평가가 갈림
- 대북 정책에 대한 찬반의 형태로 정치인식에 반영되는 경향
- 대통령 후보 선택과 지지정당 또는 투표정당 선택에 있어서도 통일복한 이슈의 영향력은 감소
- 대북정책만족도로 수렴되는 것은 통일복한문제에 대한 판단이 정치이념과 지지정당 선택의 구성요소로 기능은 하지만 주요 이슈로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 민주당 지지 또는 진보층에서의 의견의 분화가 더 커지는 상황

Thank you



Z세대의 통일 회의론 분석:
자발적 회의론, 비자발적 회의론,
그리고 통일 무관심

김택빈

Z세대의 통일 회의론 분석: 자발적 회의론, 비자발적 회의론, 그리고 통일 무관심 (요약문)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더 이상 반드시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업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우리 모두의' 소원은 더더욱 아니다. 통일이 가져다줄 막대한 이익을 강조하는 통일 편익론이나 민족주의적 정서를 강조하는 당위적 통일론도 젊은 세대에게는 별다른 호소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소위 Z세대의 통일 회의론을 개념화, 구체화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한 총 19,204명의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통해 그동안 '통일 회의론'이라 통칭되어 온 입장 안에서 개념적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검증함으로써 젊은 세대 내 통일 회의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볼 것이다.

2. Z세대와 통일 회의론

지금까지 남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통일의식 조사에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은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이었다. '귀하는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 문항의 주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 방식은 통일 회의론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적 차이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 통일 회의론이라 통칭되는 관점 안에도 간과할 수 없는 인식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 현상은 바로 '비혼주의'이다. 비혼주의를 자발적 비혼주의와 비자발적 비혼주의로 나뉠 수 있듯, 북한과의 통일에 회의적인 입장도 '자발적 통일 회의론'과 '비자발적 통일 회의론'으로 보다 구체화해볼 수 있다. 북한과의 통일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자발적 통일 회의론과 현실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자발적 통일 회의론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통일 자체에 대한 무관심도 통일 회의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자발적 통일 회의론, 통일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비자발적 통일 회의론, 그리고 통일이라는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는 통일 무관심론의 세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1990년 이후 태어난 Z세대의 통일 회의론을 구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 어떠한 사회적 균열 요인(지역 갈등, 성별, 이념 성향, 교육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성세대(1990년 이전 출생)와 Z세대(1990년 이후 출생)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것이다.

3. 통일에 대한 불필요 인식

통일의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통일의 조건과 기회가 조성되더라도 북한과의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발적, 적극적 통일 회의론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기성세대의 경우 기성세대는 영남지역 출신일수록, 여자일수록,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았다. Z세대의 경우 영남지역일수록, 여성일수록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통일의 여건이 조성되더라도 북한과의 통일은 불필요하다는 자발적 통일 회의론에는 기성세대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균열 요인들이 고른 영향을 미치지만, Z세대의 경우 지역과 성별의 요인만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통일에 대한 불가능 인식

- 통일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통일 편익과 의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통일이 초래할 사회경제적인 부담과 문제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기성세대의 경우, 영남지역일수록, 여성일수록,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의 경우 주요한 사회적 균열 요인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양한 사회적 균열 요인들이 통일의 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성세대와 달리, Z세대에서는 통일의 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식별되지 않은 것이다.

5. 통일에 대한 무관심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 통일 회의론의 한 축을 구성하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기성세대에서는 앞선 모델들과 유사하게 영남지역 출신일수록, 여성일수록,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에 대해 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는 영남 출신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에 무관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6. 소결

기성세대의 통일 회의론에는 기존의 사회적 균열요인들과 다양한 인구학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Z세대의 통일 회의론에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균열 요인이 식별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 갈등 변수는 통일에 대한 불필요성 인식과 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변수는 통일에 대한 불필요성 인식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Z세대의 통일 회의론이 특정한 사회적 균열 구조를 중심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Z세대 내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부분은 기성세대와 Z세대 모두에게서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 변수가 통일의 필요성, 가능성, 관심의 모든 측면에서 통일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확산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세대를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의 편익이나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방식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체제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통일 인식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Z세대의 통일 회의론 분석: 자발적 회의론, 비자발적 회의론, 그리고 통일 무관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택빈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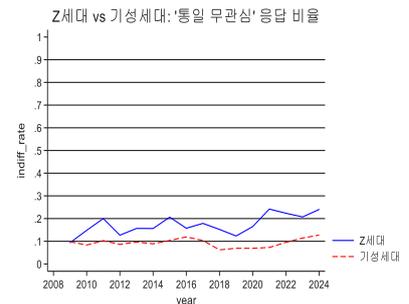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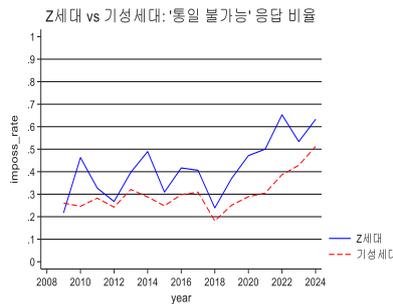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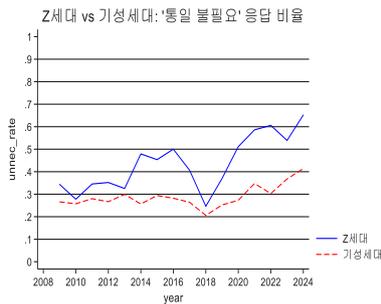
목차

1. 들어가며
2. Z세대와 통일 회의론
3. 통일에 대한 불필요 인식
4. 통일에 대한 불가능 인식
5. 통일에 대한 무관심
6. 소결



1. 들어가며

- 분단 이후 7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며, 통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크게 변화
- 오늘의 젊은 세대(1990년 이후 태어난 Z세대)에게 통일은?
→ 반드시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업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모두의' 소원은 더더욱 아니다.



1. 들어가며

-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한 체제의 내구력이 영원할 수 없다면?
→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일임이 분명
- 그동안 진행되어온 다양한 통일 논의는 대부분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 새롭게 부상하는 통일 회의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매우 부족!
-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언제나 다를 수 있으며, 원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은 냉정한 현실 인식”
-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태어난 소위 Z세대의 통일 회의론을 개념화, 구체화하고자 함.
- 2009년~2024년까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총 19,204명의 데이터를 분석, 기성세대와 Z세대의 통일 회의론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의 균열 구조를 비교, 검토



2. Z세대와 통일 회의론

- 지금까지 대부분의 통일의식 조사에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은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 “귀하는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지만 이러한 설문 문항은 통일 회의론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통일 회의론 안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인식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
-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 현상은 바로 **비혼주의**
- 개인적 자유의 추구, 젠더 갈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부동산 가격 폭등, 결혼 자금 부족 등 → 구태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음. (통일에 대한 회의적 관점은 비혼주의적 태도와 유사!)
- 자발적 비혼 vs. 비자발적 비혼
- 통일에 대한 회의론: **자발적 통일 회의론**과 **비자발적 통일 회의론** + **통일 무관심**으로 구체화 가능



2. Z세대와 통일 회의론

- 통일 회의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관점
- ① **자발적 통일 회의론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
통일을 위한 주변 여건이 성숙하고 우리의 내적 역량이 갖춰지더라도 북한과의 통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 의지적, 적극적 반대
- ② **비자발적 통일 회의론 (통일의 가능성을 부정):**
통일이 주는 사회경제적 편익이나 민족사적 의의에 어느 정도 동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통일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 → 수동적, 체념적 반대
- ③ **통일 무관심:**
통일의 필요성이나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일이란 문제 자체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태도



2. Z세대와 통일 회의론

-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태어난 Z세대의 통일 회의론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세분화
- 우리 사회의 어떠한 사회적 균열 요인들이 Z세대의 세 가지 통일 회의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사회적 균열 요인: 지역 갈등 변수(영호남), 성별 변수, 이념 성향 변수(보수-중도-진보), 교육 수준 변수
- 통제 변수: 연령, 소득 수준, 결혼,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 북핵 위협
- 1990년 이전에 태어난 기성세대와 1990년 이후 태어난 Z세대 간의 인식적 차이를 비교
- 총 19,204명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1990년 이전에 태어난 기성세대: 85.63%, 1990년 이후 태어난 Z세대: 14.37%)



3. 통일에 대한 불필요 인식

- 통일에 대한 불필요 인식: 통일의 조건과 기회가 조성 되더라도 북한과의 통일은 불필요
-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매우 필요/약간 필요, 1=별로 필요치 않음/전혀 필요하지 않음)
- 기성세대는 영남일수록, 여자일수록, 보수적일수록, 교육수준 낮을수록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
- Z세대는 영남일수록, 여성일수록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
- 자발적 통일 회의론에 대하여 기성세대는 다양한 균열 구조가 영향, Z세대는 지역과 성별만 영향을 미침.

	기성세대		Z세대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지역 갈등	-0.922** (0.080)	-0.893** (0.081)	-0.909** (0.182)	-0.828** (0.186)
성별	0.477** (0.066)	0.339** (0.070)	0.353* (0.161)	0.329* (0.165)
이념 성향	0.137** (0.040)	0.213** (0.042)	0.132 (0.104)	0.118 (0.104)
교육 수준	0.284** (0.049)	-0.135* (0.068)	0.094 (0.217)	0.058 (0.223)
연령		-0.043** (0.004)		0.050+ (0.029)
소득 수준		0.006 (0.037)		0.147 (0.099)
결혼		-0.033 (0.110)		-0.166 (0.323)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		-0.304** (0.051)		-0.345** (0.118)
북핵 위협		0.005 (0.047)		0.046 (0.115)
N	4792	4788	724	724

4. 통일에 대한 불가능 인식

- 통일에 대한 불가능 인식: 통일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부담과 문제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
-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0=5년 이내/10년 이내/20년 이내/30년 이내/30년 이상, 1=불가능)
- 기성세대는 영남일수록, 여자일수록, 보수적일수록, 교육수준 낮을수록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
- Z세대는 사회적 균열 요인이 식별되지 않음.
-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은 공통적으로 통일에 대한 불가능 인식을 줄이는 변수로 식별

	기성세대		Z세대	
	모델5	모델6	모델7	모델8
지역 갈등	-0.255** (0.068)	-0.238** (0.069)	-0.278+ (0.151)	-0.230 (0.156)
성별	0.286** (0.059)	0.156* (0.062)	0.011 (0.139)	-0.017 (0.141)
이념 성향	0.072* (0.036)	0.091* (0.038)	0.054 (0.094)	0.038 (0.095)
교육 수준	-0.109* (0.043)	-0.236** (0.061)	-0.092 (0.185)	-0.088 (0.189)
연령		-0.018** (0.004)		0.016 (0.025)
소득 수준		-0.031 (0.033)		0.130 (0.091)
결혼		0.060 (0.101)		0.225 (0.267)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		-0.371** (0.046)		-0.215* (0.103)
북핵 위협		0.051 (0.043)		-0.046 (0.098)
N	6260	6254	1005	1005

5. 통일에 대한 무관심

- 통일에 대한 무관심: 통일의 필요성, 가능성 여부를 떠나 통일 문제 자체에 무관심
- ‘남북한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0=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점진적 통일/현재 상태 선호, 1=관심이 별로 없다)
- 기성세대는 영남일수록, 여자일수록, 보수적일수록, 교육수준 낮을수록 통일에 대해 더 무관심
- Z세대는 영남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무관심

	기성세대		Z세대	
	모델9	모델10	모델11	모델12
지역 갈등	-0.409** (0.111)	-0.388** (0.111)	-0.508* (0.210)	-0.400+ (0.217)
성별	0.289** (0.091)	0.159+ (0.095)	-0.014 (0.181)	0.038 (0.187)
이념 성향	0.155** (0.055)	0.213** (0.058)	0.151 (0.114)	0.180 (0.118)
교육 수준	0.021 (0.067)	-0.306** (0.094)	-0.264 (0.226)	-0.391+ (0.232)
연령		-0.029** (0.006)		0.038 (0.032)
소득 수준		0.072 (0.049)		0.246+ (0.129)
결혼		-0.041 (0.148)		-0.856* (0.412)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		-0.403** (0.074)		-0.085 (0.134)
북핵 위협		-0.165* (0.067)		-0.169 (0.127)
N	6261	6255	986	986

6. 소결

- 이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불필요성, 불가능성, 무관심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통일 회의론을 분석
- 분석 결과, 기성세대의 통일 회의론에는 기존의 사회적 균열 요인들 + 다양한 인구학적 변수들이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하지만 Z세대의 통일 회의론에는 사회적 균열 요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
(지역 갈등 변수는 통일에 대한 불필요성 인식과 무관심에만, 성별 변수는 불필요성 인식에만 영향)
- 한 가지 주목할만한 부분은 기성세대와 Z세대 모두에게서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 변수**가 통일의 필요성, 가능성, 관심의 전 영역에서 **통일 의식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
→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일정 부분 북한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
- 정책적 측면에서 통일의 편익이나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통일 인식 개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

Thank you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